SW 신원이엔지
대표 김 종 인
TEL:(042) 823-2713
FAX:(042) 823-2714
H·P:010-5455-7591

大田투데이

안정된 노후설계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2381호 2016년 7월 20일 수요일

성일종 의원 천수만지역 태양광 설치 '도마위'

"간월호 담수 수질 오염 심각… 농민들, 썩은물 이용 농사"

서산 · 태안 지역 농민들 '불법행위 해석' 발언 취소 주장

새누리당 성일종(서산 · 태안) 국회의원이 최근 서산 간월호에 벼농사가 아닌 태양광 발전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성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산 간월호 간척 저수지 오염이 심각하다며 이 지역에 벼농사가 아닌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지역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 의원의 이러한 주장이 알려지면서 당장 서산 · 태안 지역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 의원의 발언이 지역민심과는 동떨어진 발언이라며 즉각 발언을 취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간월호 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농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민들의 여론은 외면한 채 자신의 주장만 펼친 것은 지역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성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간월호 담수는 수질이 등외등급인 5등급을 넘는 이곳에서는 절대 농사를 지어서는안된다"면서 "썩어 있는 고인 물로 농사를 지어서는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성 의원의 발언은 수질이 좋지않은 간월호 지역에서 벼농사를 지어 쌀을 판매하는 것은 정상이 아닌 불법행위로 해석될 소지로도 볼 수 있어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서산 · 태안은 물론 홍성 일부 주민들까지 범법자로 몰았다는 세간의 비난을 사고 있다.

성 의원은 간월호 오염의 주 원으로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비료때문이라며 우회적으로 농민들을 오염의 주범으로도 몰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날 성 의원의 답변에 나선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은 "규제를 풀어서 수상에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오염도가 높아지면 쉽지 않다며 관련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자기 지역구에 위치한 천수만을 예를 들며 서산 A지구에 작년까지 1270억이라는 국가 예산을 투입 했고 2016년에도 203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지만 연간 쌀 생산은 78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도 경제성이 없다면 그 곳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어 "시대가 변한 만큼 농업정책도 바꿔야 한다. 담수호를 공업용수로 개발해 인근 공단에 판매하는 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에 태양광 발전을 한다면 농업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낼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농민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현대건설이 1979년 8월 물막이 공사를 시작해 1982년 10월에 B지구, 1984년 3월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A지구농경지6446ha 담수호2504ha B지구 농경지 3745ha 담수호 1560ha의 농경지와 담수호가 조성됐다.

특히 간척으로 대단위 농경지가 조성되면서 먹이가 풍부해 천수만 일대가 국제적 철새도래지로 자리를 잡고 있다.

천수만에서 50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다는 A씨는 이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당시 지역의 일꾼을 자청한 사람이 지금 와서는 농민을 궁지로 내 몰고 있다"고 분개했다.

성일종 의원이 서산 · 태안 농민은 물론 홍성 농민까지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외면하는 발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한 기자

대전역~세종시~오송역 BRT 개통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사진 왼쪽부터 다섯번째)이 19일 오후 대전역 동광장에서 열린 대전역 BRT 개통식에 참석해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대졸예정자도 직업훈련 참여할 수 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대학졸업예정자도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역 · 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7일 공포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마련된 것으로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층 취업 촉진을 위해 대학졸업예정자도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은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직업훈련 사업으로 매년 15만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연중 수시로 다양한 훈련과정을 공급하고 매월 10만원 이상의 훈련장려금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대학졸업예정자의 참여를 제한했으나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9월에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교육 · 훈련의 취약한 산업현장성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 · 산업별 인력양성인프라도 구축한다.

정부가 아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산업계에서 자격과 교육 · 훈련 기준을 개발 · 보급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훈련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부는 정보기술, 금융 · 보험, 기계, 화학, 전자, 섬유 등 13개 산업분야의 위원회와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 · 운영 중인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역 인자위는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 '교육 · 훈련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지역 · 산업 맞춤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4년제 대학 취업률 1위(2014년 85.9%)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한국기술교육대의 설립과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개정 법률에 한국기술교육대의 원격훈련사업 실시근거가 마련돼 기술.공학 분야 무료 원격강의를 제공하는 'e-코리아텍'(www.e-koreatech.ac.kr)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폴리텍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2년제, 산업학사)의 학점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군복무 중 원격수업 취득학점도 인정하며 기존에는 다른 학교 등 학교밖에서 취득한 학점을 최대 28학점까지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졸업이수학점(108학점)의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건축물용도 규제는 사전규제(지정 요건)에서 사후규제(지정취소 사유)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대학졸업예정자들이 다양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현장의 기술과 지식을 반영한 교육 · 훈련이 이뤄지도록 지역 · 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천동지하차도-천동초 도로 확장공사 민원 해결됐다"

권익위, 도로 확장 둘러싼 대전시 · 지역민 간 갈등 조정

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도로공사로 인해 갈등을 빚어온 대전광역시와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합의에 도달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어린이 교통안전은 물론 체육 학습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며 제기한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천동지하차도-천동초등학교 간 도로 확장 공사 구간에 천동초등학교 운동장이 편입되어 담장 하나 사이로 4차선 도로가 건설되면서 학부모 교사 등 2261명이 지난 3월 권익위에 제기한 집단민원이 이번 현장조정으로 해결된 것이다.

주민들은 도로 선형을 변경하여 도로확장 사업에서 학교 부지를 배제하여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에 대해 대전광역시는 만일 과도하게 선형을 변경할 경우 도로 이용자 등의 안전 확보가 어렵고 민 · 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학교 부지를 편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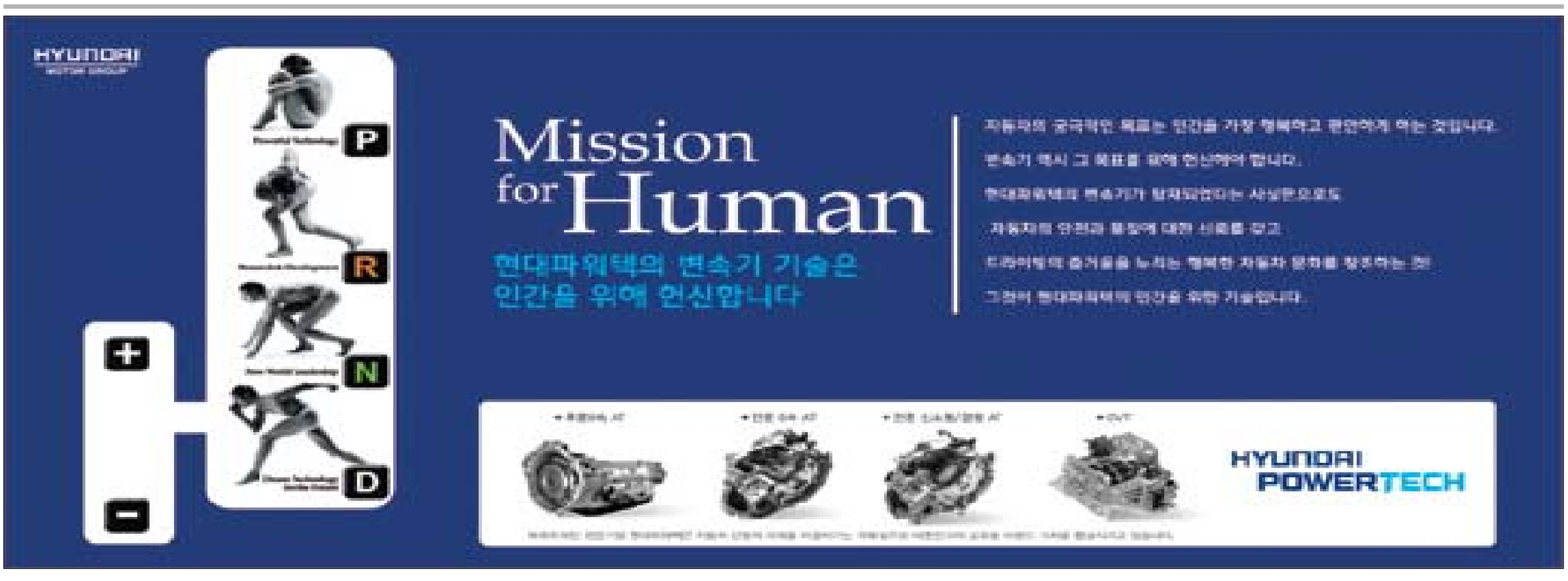
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9일 오후 3시에 대전 동구청 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교육감,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대전 동구 부구청장 및 대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영훈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은 도로확장사업 관련 학교부지 편입 폭을 현행 설계된 도로의 중심선 까지로 변경하는 등 편입 면적을 최소화 하고 학교 밖에 과속단속카메라, 방음벽 같은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전 동구청장은 교내에 보안등을 설치하고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교 운동장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해 학교시설 확장 등을 적극 지원하며 ▲대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우레탄 트랙, 축구장, 농구장 등 시설물 확충을 학교장과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성영훈 위원장은 "지난 2년간 해결되지 않던 집단민원이 해결되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와 체육 학습권이 확보되고 대전광역시의 공공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각 기관에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상반기 국민 안전신고, 시설 안전 분야 '최다'

74,675건의 안전신고 접수… 60,728건의 안전위험요인 개선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16년도 상반기 동안 74,675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되어 60,728건의 안전위험요인을 개선(수용률 85%)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신고된 28,178건 보다 46,497건이 증가(165%)된 건수이며, 수용률도 지난해 19,246건(수용률 80.1%) 보다 4.9%p 향상된 결과이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학생들의 안전신고 참여율도 지난해 386명에서 1,318명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21,645건), 대구(8,284건), 부산(7,473건) 순으로 신고건수가 많았고,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가 50,716(67.9%),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23,959건(32.1%)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시설안전 분야가 32,695건(43.8%)으로 가장 많고, 교통안전 18,491건(24.8%), 산업안전 11.1%, 생활안전 7.9%, 사회안전 5.7%, 학교안전 3.7% 순이며, 처리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58,438건(76%), 한전·도로공사 등 공공 기관 12.3%, 국토부·경찰청 등 중앙기관 11.6%, 교육청 0.3% 순이다.

안전신고를 통해 개선된 주요 사례를 보면, 예천군 지보면 마전교 도로 입구에 직경 80㎝ 포트홀 발생으로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는 주민신고로 당일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였고 청도군 운문사 사리암 등산로 구간에 있는 바위가 해빙기를 맞아 낙석 우려가 있다는 등산객 안전신고로 암석을 제거하였으며 화성시 봉담읍 도로 옆 수심 1m 이상 된 농수로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어린이 추락 위험이 있어 주민 안전신고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었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국민들의 소중한 안전신고가 기관간 협의 지연이나 예산부족으로 개선이 지연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례별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여름 휴가철을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놀이, 야영장·캠핑장, 풍수해, 유원시설, 도로교통 시설 등에 대한 안전신고 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태선기자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정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천안시의회,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동으로 18일 천안NGO센터 대강당에서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권종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종담 천안시의원의 주제발표가 있은 후 임흥묵 한국노총 천안시지역본부 사무국장, 이원복 아산시노동상담소 소장, 김기호 천안시 행정지원과 노무사, 전오진 천안아산경실련 정책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아산시 이명수 의원, 전당대회 '3民 혁신' 되어야

8·9 새누리당 전당대회, 민생·민심·민의 받드는 '3민 혁신' 계기 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

새누리당 민생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이번 8.9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민생·민심·민의를 받드는 '3민 혁신'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18일,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 등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저성장과 세계경제의 침체로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새누리당 8.9 전당대회가 4.13 총선 패배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계파정치를 청산하는 새 출발의 계기가 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며, "당내화합이 실제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당내 상황에 대해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진정한 민생·민심·민의를 받드는 국민통합의 정책, 지역화합의 비젼을 제시하고 실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우리 당 선배·동료·후배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대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당의 혁신과 생산적 당청관계로 민생경제를 챙기고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과 리더쉽 검증을 통해 시대상황이 요구하는 인물이 선출되도록 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안상국 의원, 윤리특위 활동 강화 대한 조례개정안 발의

천안시의회 안상국 의원은 19일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강화를 위한 조례개정안과 규칙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천안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징계기준을 신설,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구성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규칙에 의한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은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9명이며, 위원장에는 부의장, 부위원장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명문화하였다.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안상국 의원은 "천안시의회가 여러가지 구설수에 오르면서 시민여러분께 본의 아닌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벌칙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천안시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징계기준을 신설하여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원들의 다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안상국 의원, 김영수 의원, 정도희 의원, 서경원 의원, 황천순 의원, 유영오 의원, 인치견 의원 등 7명이다.

천안=김정환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정준이 의원 선출

부위원장에 김선무 의원 선출

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정준이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사진)을 부위원장에 김선무 의원(새누리당/연서·전동면)을 각각 선출하고, 시청 및 교육청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준이 의원은 연기군자원활동센터장, 연기군여성단체협의회장, 세종시자연보호협의회 수석 부회장등을 거쳐 지난 2014년도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제2대 세종시의회에 입성한 바있다.

정준이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또한 예산이 공정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선무 의원은 "예결위원들과 함께 예산·결산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등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후 원안대로 가결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불용액이 발생되어 꼭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세종=이정복기자

"소통과 화합의 홍성군의회를 만들겠습니다"

후반기 의회 개원 이후 10명 의원 전원이 모여 화합 다짐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는 지난 18일 후반기 의회 개원 이후 10명의 의원 전원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모임은 군의회 內 최고 연장자인 이선균 의원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의장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을 봉합하고 의원 상호간 화합과 단결을 통해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양기관이 역할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는 같다고 보고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소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의회가 되는 방안을 논의 했다.

김덕배 의장은 "후반기 원구성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선거 과정에서 다소 갈등은 있었지만 크게 보면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보고 모든 것이 홍성군의회의 발전을 위한 산통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후반기 의회를 운영하면서 의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고 오직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합심한다면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의회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집행부의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홍성=최진우기자

부여군의회, 제212회 정례회

부여군의회(의장 이경영)는 지난 19일~29일까지 11일간 정례회를 열고 군정업무 보고와 2015년도 예산결산 등 주요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제212회 정례회에서는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역점으로 추진할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 6건의 조례 안건심사, 2건의 의견제시, 2015 회계연도 결산승인 요청안 등 4건의 회계승인 등에 대한 심의와 함께 모두 12건의 안건에 대한 본회의 의안처리가 진행된다.

지난 7월 1일 부여군의회는 후반기 의장으로 이경영 의원을 선출한데 이어 이번 정례회를 통해 후반기 원구성을 부의장 이삼례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남호 의원, 총무위원장 송복섭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수 의원을 선출하고 본회의 일정에 들어갔다.

부의장으로 선출된 이삼례 의원은 "부여군 발전을 위해 부의장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동료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정복기자

대전시의회, 인도네시아 사우스탕그랑시 대표단 접견

대전시의회 김경훈 의장은 19일 인도네시아 사우스탕그랑시 에이린 라흐미 디아니 시장 등 대표단 일행을 접견했다.

이번 대전시의회 방문은 금번 9월 인도네시아 개최 WTA 국제행사(9.20~23) 추진사항 공유 및 대전시의회와 사우스탕그랑시 간 우호협력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함으로 사우스탕그랑시와의 우호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날 김경훈 의장은 사우스탕그랑시 대표단과 환담을 나누면서 "인도네시아 사우스탕그랑시는 대전시와 마찬가지로 과학으로 유명한 도시란 공통점이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대전시 뿐만 아니라 의회와도 동반자적 교류를 확대하고 미래를 함께 하는 좋은 친구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충남도의회 행자위 "내포신도시 내 방송국 설립" 촉구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열린 도 홍보협력관실 및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홍보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또 내포신도시 내 KBS 방송국 조기 착공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욱 위원장(천안2)은 "차별화한 홍보 기법을 도입해 도민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정원 외 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변칙적 인력운영"이라며 "꼭 필요한 인력이면 정원에 포함해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KBS 방송국 설립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지역방송은 건전한 여론 조성과 지역사회의 감시를 통해 민주주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고 제안했다.

신재원 위원(보령1)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도정신문배부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지만, 미흡하다"며 "도정 소식이 도내 곳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소록이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익환 위원(태안1)은 "최근 몇년간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면치 못했지만, 지난해 중위권으로 도약했다"며 "올해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종문 위원(천안4)은 "온라인 홍보를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역 방송국 설립을 통한 도민 소식을 늘리는 등 도정 홍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은 "신도시 홍보가 아직 부족하다"며 "홍보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공휘 위원(천안8)은 "홍보협력관실 부서별로 진행하는 유사 중복 홍보 프로그램을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복기자

천안시 동남구에 '충남동부보훈지청' 설치된다

2개과에 20명의 공무원 상근, 4만632명의 보훈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천안에 충남동부보훈지청이 설치된다. 2017년에 충남동부보훈지청이 설치되면 1998년에 폐지되었던 천안보훈지청이 20여년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천안시에는 대전지방보훈청에서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상주인력이 없고 전문성이 없어서 국가유공자 등록 등 주요업무는 대전지방보훈청으로 이관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보훈행정서비스로 인해 그 동안 천안·아산시민은 관할 보훈청이 소재하고 있는 대전과 홍성으로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충남동부보훈지청이 설립되면 천안, 아산, 세종, 공주시가 관할구역이 되어 127만여명의 시민들과 4만632명의 보훈대상자가 편리하게 보훈행정 서비스를 받게 된다.

충남동부보훈지청 설치를 위해 노력해 온 박찬우 의원(사진, 새누리당 천안갑)에 따르면, "충남 동부권인 천안·아산지역에 보훈지청이 없다보니 연로하신 많은 보훈대상자들께서 대전과 홍성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호소하셔서 행정자치부와 국가보훈처에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충남동부보훈지청 유치 소감을 밝혔다.

이어 "천안에 보훈지청이 들어설 수 있게 된 데에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된게 아니라 양승조 의원과 천안시청이 오랫동안 함께 노력해 왔었기에 가능했다"며 보훈지청 유치의 공을 상대 당인 양승조 의원과 천안시청에 돌렸다.

충남동부보훈지청은 천안시 동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전지방보훈청 민원봉사실 부지에 설치될 예정이며, 보훈과와 보상과 2개과에 20명의 공무원이 상근하며 보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천안=김정환기자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가져

의정의 전문성 실현 및 내실 있는 의정활동 노력

예산군의회(의장 권국상)는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19일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의회에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 및 그 밖에 의회기능 향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자문위원은 학계 등 9개 분야의 전문가로 임기는 2년이다.

분야별 위원으로는 의회분야(박순환 제2대의회의장), 학계분야(김진기 공주대 산업과학대학교수), 노인복지분야(박상목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장), 대민행정분야(신환철 예산군 이장단협의회장), 기업분야(배규희 전)기업인협의회장), 농업분야(김종래 예산군 농협운영협의회장), 여성분야(김태금 예산군 여성단체협의회장), 문화·예술분야(오현주 한국음악협회 예산군지부장), 법조계분야(강태욱 대한법무사회 예산군지부장)로 위촉했다.

권국상 의장은 인사말에서 "처음 출범한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가 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예산=이상화기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당진시민 1000여 명 추가 건설 백지화 촉구 규탄대회 가져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주축이 된 당진시민 1000여 명이 19일 세종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는 지난 7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석탄화력발전소 개선대책에서 기존 4~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석탄화력발전소를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당진에코파워 건설도 승인될 것으로 우려한 당진시민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했다.

당진화력발전소 인근 석문면 교로리 일원에 건설을 추진 중인 당진 에코파워의 시설용량 규모는 58만kW급 2기 총116만kW로, 지난해 5월 27일 산자부에 재접수된 전원개발실시계획 신청이 최종 승인되면 발전소 건설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규탄대회에 참석한 당진시민들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송전선로로 인해 주변 지역에 막대한 건강상, 환경상, 재산상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건설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 뒤 산자부에 건설 철회를 요구했다.

실제로 당진의 경우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은 50만kW급 8기에 달하며, 당진에코파워 외에 100만kW 2기의 발전이 추가로 건설 중에 있고,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2010년 기준 2만 9470톤을 넘어섰다.

대책위 상임위원장인 이명주 씨는 "이미 8기의 화력발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염물질과 526기의 철탑으로 인해 시민들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더 이상의 발전소 추가건설과 송전선로 설치는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당진=최근수 기자

"저작권법, 비친고제 아닌 친고제로"

정책 토론회 열려…이상민의원, 저작권법개정안 대표발의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 · 사진)은 19일 현행 비친고제로 저작권법의 본질을 벗어나 고발사태를 양산시키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저작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재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에 의거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 재산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수록 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법인데, 현재는 처벌이나 단속위주여서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이 많은 사람이 쓰는 것을 원해도 법파라치 로펌이나 사이비저작권단체의 횡행으로 인해 저작자의 위임없이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금을 받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등 저작권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임.

실제, 지난 2014년 2월 시민단체가 비친고죄로 하여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기관이 공소를 하거나 제3자(개인과 단체)에 의한 고발권까지 인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의원 270인을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저작권법의 본질을 벗어난 남고발사태를 야기하여 사회문제화 할 수 있는 것임.

이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때 발의하였으나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와는 전반대의 내용으로 수정되어 법사위로 넘겨졌으나 법사위에서 수차례의 법안심의를 거쳤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던 법으로 이번에 다시 재발의하게 된 것임.

이상민의원은 "저작권법에 존재하는 모든 법리들은 최종적으로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제재규정 역시 동법의 목적추구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도구"라고 밝히고 "저작권법상의 범죄행위를 친고죄로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판단도 친고죄와 비친고죄 중 어느 것이 저작자의 이익과 일반공중의 이익을 조화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며, 일반 형사범죄에서와 달리 저작권범죄의 경우 권리자는 침해에 대한 배상만 얻으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므로, 그 처벌여부를 권리자에게 맡기는 친고죄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비친고죄로 적용으로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기관이 공소를 하거나 제3자(개인과 단체)에 의한 고발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본질을 벗어난 남고발사태를 야기하여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며, 실제 소위 법파라치 로펌이나 사이비저작권단체의 횡행으로 인해 저작권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저작권 이용에 있어서 필요없는 규제로 인해 위축된 사회에서 창조경제도, 저작권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저작권법상의 일정 범죄에 대해 저작권자의 고소를 소추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로 하고자 재발의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태선 기자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1603

한화첨단소재 '세종본사 신축본관' 준공

사무동 · 라운지동 · 링크동 3개의 블록(Block)으로 설계

한화첨단소재(대표 이선석)가 19일, 세종본사 신축본관 준공식을 진행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선석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 세종본사 신축본관에서의 새 출발을 자축했다.

세종시 부강면에 위치한 한화첨단소재 세종본사 부지 내 건설된 신축본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약 8개월여 만에 완공됐으며, 연면적 4,054m2(약 1,230평), 건축면적 1,610m2(약 490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구조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축본관은 3개의 블록(Block)으로 설계되었으며, 각각의 블록은 업무중심 공간인 '사무동'과 휴식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라운지동'을 비롯해 두 개의 블록을 이어주는 '링크동'으로 구분된다.

특히, 기존 건물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으며, 각각의 공간은 임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립된 사무공간을 제공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넓고 안락한 휴식공간도 함께 갖췄다.

이날 준공식에서 이선석 대표이사는 "임직원 모두가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새 보금자리가 생겨 기쁘다"며, "세종본사 신축사옥 건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임직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첨단소재는 세종본사 신축본관 준공을 기념해 19일부터 29일까지 회사 공식 블로그(www.hanwha-advanced.com)를 통해 '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세종=이정복 기자

아산 온양남성의용소방대 해산 통보

'명백한행정 절차' 행정심판 청구 조짐…명예훼손 등 소송 불사

광복 이듬해인 1946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목표아래 창립된 온양남성의용소방대(이하 온양의소대)가 70여년 전통을 뒤로 하고 해산될 위기에 처해 졌다. 온양의소대가 해산 및 대원 면직 처분된 것 관련 대원들은 '명백한 행정 절차 하자'란 주장으로 맞서며 행정심판을 청구할 조짐이다.

특히 해산 및 대원 면직 결정까지 이뤄진 배경인 '민원처리결과보고서' 등 서류 공개 요구에 숨기기만 하고, 관할기관(소방서)의 일방적이면서 말도 안되는 행정처리로 해산 결정을 내리는 등 대원들은 억울함에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7~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추대형식의 대장 추천방식에 반대하며 경선이 시작되면서 당선된 대장이 낙선된 후보 지지 대원들의 강제 면직 등 불협화음이 발단이 되고 또다시 낙선됐던 후보가 대장에 취임하며 전 대장 추종 대원들의 근태 등을 이유로 해임을 면직처분 등으로 온양의소대 대원들이 둘로 갈리는 상태가 지속돼 왔다.

또다시 취임한 이범영 대장은 지난해 10월께 소방대장이 활동을 하지 않는 대원들의 해임을 고민하며 아산소방서에 의견을 구했는데 해임 대상의 명단이 대원들에게 알려지면서 대원들간 갈등이 시작됐다.

이범용 대장은 "당시 자체 간부회의를 통해 활동하지 않는 대원들을 해임하기로 결정하고 아산소방서에 방법론 등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한 소방공무원이 해임 대상 대원과 친해 알리게 되자 나를 해임하는 민원도 접수되는 등 현 사태까지 이르렀다"며 "아무리 친분이 있었도 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제재 검토를 요구했더니 일러받쳐 갈등만 부추인 상황이 됐다"고 이 사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결국 대원들간 갈등은 진척되지 않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충남소방본부는 조사에 착수, 의용소방대운영위원들의 결정에 따르기로 회부된 것이다.

그 후 지난해 12월 2일 1차 회의에선 2개월 유보 처분을 받았고, 지난 2월 2차 회의는 3개월 직무활동정지 처분에다 지난 5월 3차회의는 7월 18일까지 대원 3분의 1 감원명단 및 자필사직서를 제출하라더니 지난 6월 24일 일방적으로 아산소방서가 4차 회의를 통해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와관련 이범용 대장은 "3개월 직무활동정지 처분을 내릴때도 다수의 대원들이 풀어달라호소함에도 묵살하더니, 3차 심의 결과대로 7월 18일까지 대원 감원 준비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일방적으로 회의 통보 및 해산 처분하는 경우는 아산소방서가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는 활동 안하는 일부 대원들과 친분관계로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행정으로 열심히 활동한 애꿎은 대원들만 쫓아낸 상황으로 억울하고 분통터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또 충남소방본부조차 자신들이 조사한 민원처리결과보고서를 비공개로 숨기고 있는데, 자신들의 부당한 행정을 숨기려는 꼴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덧붙여 3차 회의도 나만 조사받아 형평성 원칙 위배로 재심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수차례 회의때 간부들 다 참여시켜달라 요구했어도 묵살하더니 이는 짜맞추기식 거짓말"이라고 발끈했다.

이에대해 아산소방서 관계자는 "운영위원 회의록 등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해 줄 수 없다. 일부 행정이 잘못됐다는 주장 관련 약간 행정 실수가 있을 순 있지만 현재 해산 결정이 결정돼 어쩔 수 없고, 안타깝다"고 해명했다.

한편 온양의소대는 해산 결정까지의 행정 절차에 있어 부당성이 있다고 보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며, 한 소방공무원 개입설 등 그동안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명예훼손 등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산=리량주 기자

●동 정●●●

대전지구 전투 전승기념식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20일 오전 10시 30분 보라매공원(서구 둔산동)에서 열리는 제4회 대전지구 전투 전승기념식 참석.

대전지구 전투전승 기념행사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20일 오전 10시 30분 보라매 공원에서 열리는 대전지구 전투전승기념행사참석.

무더위 쉼터 운영상황 점검

한현택 동구청장= 20일 오후 2시부터 관내 경로당 ,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상황 점검에 나선다.

제19기 노인대학 종강식

박용갑 중구청장= 20일 오후 3시 30분 대한노인회중구지회에서 개최되는 '제19기 노인대학 종강식' 참석.

대전지구전투 전승 기념행사

장종태 서구청장= 20일 오전10시 30분 보라매공원에서 열리는 '대전지구전투 전승기념행사'에 참석.

2분기 퇴임통장 감사패 수여

박수범 대덕구청장 = 20일 오전 11시 30분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2016년 2분기 퇴임통장 감사패 수여 및 간담회에 참석.

daejeontoday.com

중구, '칼국수축제 추진위원회' 개최

"음식 소재로 한 문화축제로 발전"

중구는 19일 중회의실에서 내년에 개최예정인 '제3회 칼국수축제'를 위해 추진위원 및 실무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칼국수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추진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내년 축제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각부서별 축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에 의해 마련됐다.

추진위원들은 제2회 칼국수축제에 대한 성과와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행사장 구성을 비롯해 내년 축제에 새롭게 도입할 프로그램 등에 대한 토의시간을 가졌다.

구는 지난해 축제에 대한 총괄보고 자리에서 "3일간 6만여 명의 관람객 유치와 대전 칼국수에 대한 정체성 확보 및 발전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며 "주제성 있는 콘텐츠 도입과 푸드코트 운영자의 응대서비스 미흡 및 오류동 음식거리와 유기적인 연계필요 등 개선해야 할 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제3회 축제는 내년 4월초에 3일간 서대전시민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푸드코트 확대, 컵칼국수 도입, 칼국수 셀프 조리존, 칼국수 빨리 먹기대회 등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박용갑 청장은 "대전칼국수의 전통성을 되살리고 대전의 대표음식으로 육성하는 한편 먹거리 중심에서 음식을 소재로 한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제3회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예산반영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시 홍보매체 활용 기업 홍보 적극 지원

16곳 선정, 도시철도 광고 등 통해 올해말까지 홍보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2016년 제1차 홍보매체 이용대상으로 선정된 16개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철도 역사 광고판 등 홍보매체를 개방, 관내 대학 디자인 재능기부로 기획된 홍보물을 게시하여 홍보를 지원한다.

이는 시정홍보로만 활용했던 시 홍보매체를 경제적 여건 등으로 광고를 하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작년 10월 제정한 「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에 따른 것으로서, 올해 초 사업계획 수립 · 이용대상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청년창업 점포를 홍보하는 '유천시장' 등 8개 전통시장, ▲장애인 직업재활 훈련기관인 '한터',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숲으로',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비영리법인 8곳이다.

금번 홍보매체 이용의 광고 디자인은 사업의 취지를 공감한 한밭대 · 대전대 디자인학과 교수 및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으며, 업체의 디자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학생들이 직접 방문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소통 및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 디자인이 확정됐다.

시는 금번 선정된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도시철도 역사내 광고판을 시작으로 홍보판, LED 전광판 등 63면을 활용하여 금년말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시 보유 홍보매체 시민이용은 공익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홍보수단 · 재정 등이 열악하여 홍보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던 법인 및 단체에게 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게 함으로써 판로개척 및 경제활동에 작은 보탬을 주고자 한 것으로, 금번 응모신청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참여업체들의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모든 신청업체를 지원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도시정비 사업 소식지 발행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관내 주요 도시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이해 및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소식지를 제작 · 발행한다.

도시정비 사업의 복잡한 내용으로 주민들이 이해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잦은 민원도 발생함에 따라 누구나 일목요연하게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식지를 발행한다.

이번 소식지에는 ▲202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대신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진행 중인 정비 사업 ▲판암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대전역복합2구역 개발사업 ▲철도변정비사업 등 시와 구에서 추진 중인 중장기 도시정비 사업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환 원도심사업단장은 "도시정비 사업 소식지 발행을 통해 주민 실생활에 밀접한 각종 사업 추진 상황의 정확한 이해와 관심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서구, '1사 1도랑 살리기' 기업체 참여 활발

서구에서 수질환경개선과 도랑생태 보전을 위해 2015년 시작한 '1사 1도랑'이 도랑살리기 운동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서구는 환경부 도랑살리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1사 1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8개소 도랑을 기업체와 1대 1로 매칭하여 지속적인 정화활동, 수생식물관리 등 물길 상류인 도랑의 수질개선과 생태보전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7월은 장마철 폭우로 도랑에 넘어진 수초를 제거해 물길을 터주고, 적치된 폐비닐 · 쓰레기 · 나뭇가지 등을 제거하는 등 정화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1사 1도랑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이마트트레이더스(산직동 용태울도랑) ▲KT충남고객본부(원정동 원정도랑), ▲롯데백화점 대전점(우명동 새골도랑) ▲계룡건설산업(주)(흑석동 등골도랑) ▲㈜맥키스컴퍼니, 건양대학교병원, 부원공업(주)(오동 장전도랑) ▲한국전력공사 서대전지사(산직동 석밭도랑) ▲㈜금성백조주택(평촌동 증촌꽃마을도랑)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산직동 비선도랑)이다.

서구관계자는 "동절기를 제외하고 매년 3월부터 11월 말까지 매월 기업체별로 지정된 도랑에서 정화활동을 전개해 도랑 수질이 개선되고 환경도 깨끗해져 마을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전했다.

김태선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보호위원연합회 2/4분기 임원회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박태규)의 보호위원연합회(회장 전문수) 는 지난 15일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법무보호공단대전지부 직원 및 보호위원연합회 임원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위원연합회 2/4분기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회의는 2016년도 상반기 결산보고 및 전진대회 · 체육대회건 논의, 활성화 방안 토의, 만찬 및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묵묵히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보호사업은 단순히 대상자 한사람의 복지를 넘어, 가족의 해체를 막고, 재범방지를 통해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결국에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초석이 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더욱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보호위원회는 공단의 법무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의 재범방지와 법무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병배 기자

유성구새마을며느리봉사대, 밑반찬나누기 행사 유성구새마을부녀회(회장 김경옥) 각동회장 10명이 매월 시행하고 있는 유성구새마을며느리봉사대는 지난 18일 밑반찬나누기 행사를 펼쳤다. 이날 며느리봉사대는 특별히 어르신들의 입맛을 위해 보양음식 오리백숙과 배추김치, 찹쌀죽을 준비해 결연되어 있는 10명의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오피니언 리더 과정 2기 모집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민주시민 역량강화 차원으로 개설된 「대전 오피니언 리더 과정」은 지역의 리더들이 함께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 및 토론과정을 통하여 대전 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자기주도적 리더 양성에 부합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 강사진을 통해 지역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해가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과정에는 리더십, 인문학, 지역학, 대전의 복지, 과학, 건강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윤은기 전)중앙공무원교육원장, 정세현 전)통일부장관, 김명곤 전)문화관광부장관, 강치원 강원대 교수, 권동일 표준과학연구원장, 이상용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총 14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선다.

2기 과정은 9월 1일부터 15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며, 모집은 오는 8월 12일까지로 서류전형을 거쳐 30여명의 리더들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영호기자

청양 구기자 제14회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온라인 · SMS 문자 · 1:1대면 투표 통해 브랜드 이미지 · 인지도 등 통합심사로 실시

청양 구기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농 · 식품 브랜드로 우뚝 섰다.

청양군(군수 이석화)에 따르면 청양 구기자는 한국소비자포럼이 주최한 제14회 올해의 브랜드 대상 농특산물 부문에서 전국 각지 총 22개의 쟁쟁한 후보군 중 명실상부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돼 19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브랜드 대상 선정은 온라인, SMS 문자, 1:1대면 투표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 및 인지도 등 통합심사로 실시됐다.

청양의 기후와 토양은 구기자 재배에 적합해 최고의 품질로 각광받고 있으며, 생산량 또한 전국의 67%를 점유하고 있어 명실상부 최대의 구기자 주산지로 꼽히고 있다.

베타인, 제아잔틴, 비타민 A · B1 · B2 · C 등이 다량 함유돼 있는 청양 구기자는 최근 성기능 개선, 기억력 개선, 간기능 개선, 항산화 효과, 고지혈증 개선, 피부미용 등에 탁월하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발표되며 국민건강을 지키는 대표 건강식품으로 그 효능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청양군은 지난 2013년부터 GAP 인증, 친환경인증 등 안전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구기자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에 노력해 오고 있다.

또한 올해와 내년을 '청양 구기자의 해'로 정하고 인지도 향상 및 브랜드 강화를 위해 전통적인 1차 산업과 그에 따른 유통체계에 의존했던 한계를 벗어나 차별화된 마케팅과 로드맵으로 구기자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석화 군수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행정지원으로 그동안 침체됐던 청양 구기자 산업에 새로운 비전을 찾게 됐다"면서 "좋은 브랜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제정된 한국소비자포럼의 권위 있는 브랜드 대상 수상으로 다시 한 번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복영수 청양구기자원예농협조합장은 "청양 구기자의 자생력 강화와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철저한 생산이력 및 재배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재배 농업인들의 관심과 인식변화를 당부했다.

청양=정상범 기자

아산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아산시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기술습득을 통한 민간취업 기반 마련을 위한 2016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1일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추진되며, 시는 지난 6월 사업 참여 신청자를 접수받아 재산, 소득 및 사업 참여이력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49명의 참여자를 선발했다.

참여자들은 10월 말까지 짚풀공예 전통기술 전수사업, 사랑나눔 제빵사 양성사업, 아름다운 학교 벽화 그리기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곡교천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단순 일자리 제공에서 탈피하고, 기술교육을 연계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사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는 올해 하반기에 4개 사업을 신규 발굴했다.

특히, 시는 '사랑나눔 제빵사 양성사업'을 통해 주부들의 대표 관심분야인 제과 · 제빵 분야에 대한 교육으로 관련분야 취업을 유도하고, '짚풀공예 전통기술 전수사업'을 통해 점차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 발전하고, 외암민속마을 관광지를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통해 다문화 가정 여성의 언어능력을 활용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성공적인 국내 정착도 도모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온양6동 주민 참여형 워크샵 열려

아산시 관내 마을단위 도시재생 워크샵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활기를 띄고 있다. 어색하기만 했던 워크샵은 2회째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조별 발표에 나설 정도로 친숙해 졌고 이제는 민관산학의 협력의 장으로 '마을잔치'로 확대됐다.

지난 16일, 아산시 온양6동에서 진행된 '제2회 도시재생 워크샵'은 이 분야의 전문가와 분야별 전공 대학생, 공무원, 주민들이 한데모여 워크샵을 열고 자신들이 살고있는 새롭게 만들고 싶은 마을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까지 얻게 됐다.

지난해 10월 전국 마을단위 워크샵으로는 처음으로 '구온양(舊 溫陽), 마을 살리기 주민 참여형 워크샵'이 제2회째를 맞이하며, 통상적인 워크샵 틀에서 벗어나 마을잔치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주민들의 생각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소통과 화합하는 협력의 장으로써 마을을 사랑하고 자긍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 이를 토대로 오는 9월에 예정된 '온주동 문화제'를 준비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워크샵은 순천향대 도시재생클라우드랩(이하 도시재생연구소)과 아산도시재생대학(학장 이희원), 온양6동(동장 김완겸) 주민들이 주체가 되었고 교수, 대학생, 분야별 전문가, 관련 공무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해 '자랑스런 우리마을'이란 주제로 예정시간을 훌쩍 넘긴 밤 10시까지 마을회관에서 진행됐다.

아산= 리량주기자

"37개 대기업집단 618개 계열사 해제 불합리"

중소기업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달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중소기업 12개 단체와 공동으로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금액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릴 경우,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대기업 기준에서 벗어나 계열사 간 상호출자 · 순환출자 · 채무보증이 가능해져 대기업의 경제력집중과 비정상적 지배구조가 심화가 우려되고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38개 관련법에 원용됨에 따라 지정 해제되는 대기업집단이 준대규모점포나 공공소프트웨어 조달시장 참여제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골목상권 침해 등 영세 중소기업 · 소상공인과의 마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연매출 1억원 미만의 소상공인부터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정책을 담당함에 따라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축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甲 · 乙문제', '공공조달시장 위장진입', '적합업종', '골목상권 침해' 등 중소기업 · 소상공인과 갈등을 빚어온 중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으로 유지하되, 신산업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만 본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이 신산업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영세 골목상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터준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창업주의 정신을 잃어버린 재벌 2 · 3 · 4세들의 탐욕을 견제하고, 시장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으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병배 기자

호랑이 불리온 메달 19일 판매 개시

조폐공사, 순금(純金)에 대한 투자가치와 수집가치의 혼합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www.komsco.com)는 최초로 출시하는 한국의 호랑이 불리온 메달 론칭 행사를 19일 실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개시했다.

호랑이 불리온 메달은 3종 · 프루프급 · 한정수량으로, 공사가 금 순도(Au 999.9)와 중량을 보증하며 판매가격은 금시세와 연동해 매일 결정된다.

중국의 판다, 미국의 독수리, 호주의 캥거루, 캐나다의 단풍잎과 같은 각국을 상징하는 동물 · 식물 등을 주제로 해외 조폐국에서 불리온 사업을 활발히 수행해오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한국조폐공사에서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동물인 호랑이를 주제로 투자가치와 수집가치가 결합된 「호랑이 불리온 메달」을 출시하게 됐다.

조폐공사는 호랑이 불리온 메달을 통해 새로운 수집문화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중 · 장기 공사의 대표 귀금속 제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집시장, 온라인 및 재래시장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 입찰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전담 판매사 3개 업체를 선정했다.

아울러 조폐공사는 최초 호랑이 불리온 메달 사업에 대한 시장반응, 진행현황 및 매년 정례적 출시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금년 10월 관련 전략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송병배기자

'포항 국제불빛축제&보경사 · 죽도시장' 기차여행 운행

대전역, 오는 30일 '포항 국제불빛축제 기차여행' 운행

코레일 대전충남본부 대전역(역장 한상덕)은 오는 30일 '포항 국제불빛축제&보경사, 죽도시장 기차여행'을 당일 하루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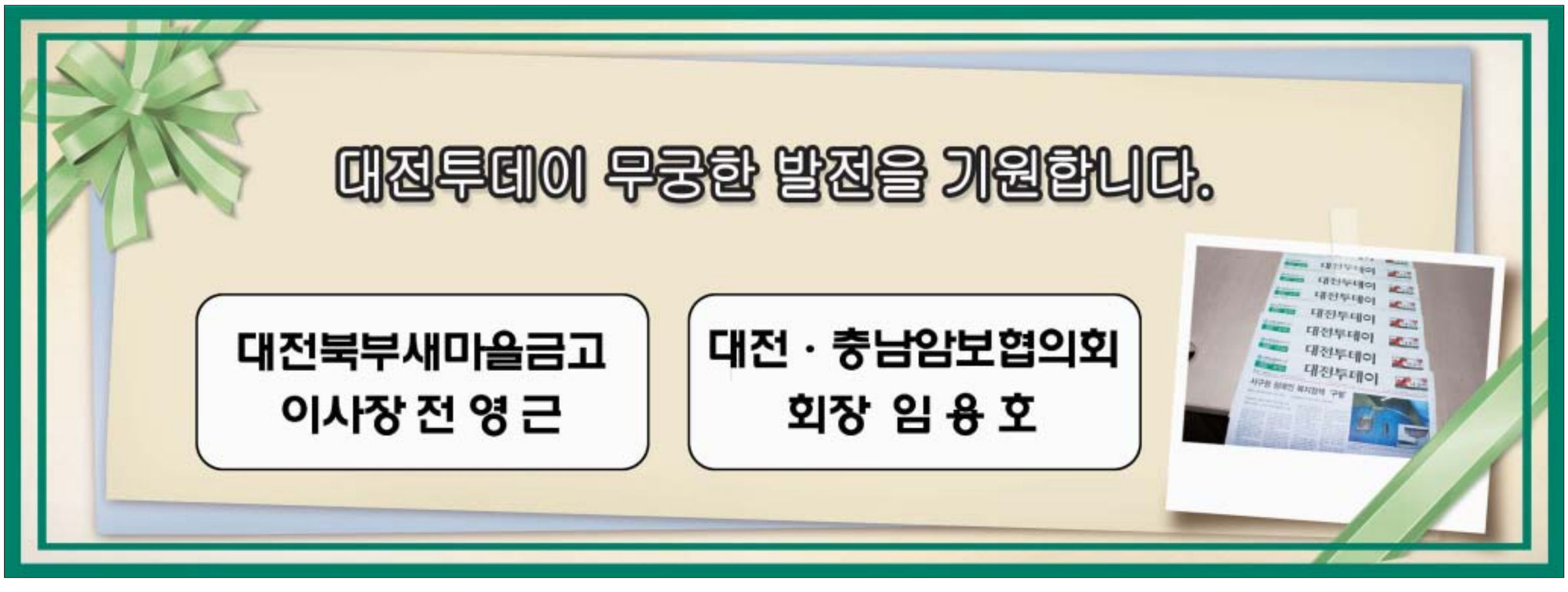
이날 운행하는 열차는 무궁화호 전세열차로 청주역(08:06), 오송역, 조치원역, 신탄진역, 대전역, 영동역을 정차 후 포항역(12:21)까지 무정차로 운행한다.

포항역 도착 후, 동해안지역에서 가장 큰 절 가운데 하나인 보경사, 동해안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포항 죽도시장을 둘러보고, 포항시에서 주관하는 제 13회 포항 국제불빛축제를 관람하는 코스로 이루어졌으며, 불빛축제는 형산강체육공원 및 영일대(북부)해수욕장 근교에서 28~31일까지 진행된다.

한상덕 대전역장은 "이번 기차여행 포항의 대표적인 관광지와 국제불빛축제 관람을 연계한 최초의 상품으로 참여고객들에게 낭만적이고 뜻깊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번 기차여행 금액은 포항역 도착 후 보경사와 포항 국제불빛 축제장 코스로 이뤄져 있으며 가격은 대전역 출발 기준 성인6만9900원, 경로 6만3700원, 소인 5만5300원이다. 가격에는 왕복열차운임, 연계차량비와 중식과 석식이 포함되어 있다. 예약 및 문의는 대전역 여행센터(042-253-7960)로 하면 된다.

송병배기자



피롤농법으로 칼슘 UP! 미네랄 UP! 예산쌀 생산

예산쌀 안정생산 시범사업 중간평가회

예산군은 지난 18일 덕산면 둔리에 있는 시험 논에서 '고품질 예산쌀 안정생산 시범사업' 중간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중간평가회는 시범농가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별화된 피롤농법을 집중 보급해 고품질 예산쌀 안정 생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2016년도 사업추진 상황보고와 시범요인 단계별 현재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관내 전반기 벼 생육상황은 평균기온이 전년대비 0.6℃, 평년대비 10.8℃로 다소 높고 일조시간도 219시간으로 평년보다 26시간이 많아 고품질 쌀 생산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벼 키는 44.3cm로 전년대비 1.7cm 크고 포기당 줄기 수는 25.9개로 많아 전반적으로 생육이 좋은 편으로 이상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중간 물떼기 등의 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이상화기자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 혼잡 7월 30~31일 절정

국토부, 특별교통대책 시행…대중교통 증편 · 우회도로 운영

올 여름 휴가철에는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전체 휴가객의 46.0%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혼잡은 이달 30~31일 이틀간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고속도로 동해선 울산~포항 등 4개 구간과 일반국도 34개 구간 개통 등으로 교통여건이 개선돼 극성수기만 피하면 작년 여름보다는 편안한 여행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17일간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계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 ·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달 22~26일 950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교통수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여름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에는 하루 평균 474만명씩 총 8065만명이 이동해 작년대비 2.5%, 평시대비 2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여름 전체 휴가객의 63.2%가 몰리는 셈이다.

특히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7일간은 전체 중 46.0%의 이동수요가 집중돼 평시에 비해 약 41.1% 정도 이동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총 7501만대(일평균 441만 대)로 작년 같은 기간(총 7325만대, 일평균 430만대)보다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 혼잡은 휴가지로 출발하는 차량은 30일,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귀경차량은 31일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자는 31일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휴가지역으로는 동해안권(29.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해안권(21.6%), 서해안권(11.3%), 제주권(9.8%)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특별교통대책을 통해 철도 ·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의 수송력을 늘리고 우회도로를 운영하는 등 교통량 분산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휴가기간 이동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1일 평균 고속버스 234회, 철도 8회, 항공기 13편, 선박 190회를 증회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늘린다. 또 고속도로 16개 노선 62개 교통혼잡 예상 구간(732㎞)에 대해 국도로 우회를 유도하고 일반국도 46호선 남양주-가평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9개 구간(169㎞)에 대해서는 우회도로를 지정 · 운영한다.

교통수요 분산을 위해 고속도로 및 국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무료앱이 제공되며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도로공사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종합교통정보안내(1333) 및 콜센터(1588-2504)와 도로전광판(VMS) 1793개(고속도로 1210, 국도 583)가 운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로드플러스의 네트워크 용량을 늘려 시간당 동시접속 가능인원을 기존 33만명에서 43만명으로 늘렸다.

휴가 기간에 앞서 울산포항선 울산~포항 구간(54km)이 신설 개통됐고 광주대구선 담양~성산 등 3개 구간(154km)이 확장 개통됐다.

아울러 일반국도 36호선 경북 소천(봉화)~서면(울진) 등 21개 구간(148km)이 준공 개통됐으며 1호선 정읍~원덕 등 13개 구간(63km)이 임시 개통됐다.

국토부는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갓길 차로제(21개 구간 224km), 승용차 임시 갓길 차로(5개 구간 18km)를 운영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29일부터 8월 2일까지는 영동선 4개소, 익산장수선 1개소의 진출부 감속차로를 연장 운영하고 경부선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14km)에는 평소처럼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수원 · 기흥 · 매송 · 비봉 등 4개 노선 23개 주요 영업소의 진입차로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방향) 등 8개소에는 본선 교통상황에 따라 진입램프 신호등 제어를 통해 진입교통량을 조절하는 램프미터링을 시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버스전용차로 · 갓길차로 위반 등에 대한 계도 및 적발을 위해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무인비행선을 1대를 추가 운영해 총 4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도로포장, 안전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고 졸음운전 예방, 안전벨트 매기 등 안전운전 캠페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고속도로 및 터널 교통사고에 대비, 119구급대 연락체계(305개소) 구축과 구난차량(1904대) 신속 연락 체계 구축 등 교통사고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 체계가 구축 · 운영된다.

도로분야 풍수해 대비 단계별 비상근무계획에 따라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며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청, 군부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시설 및 대규모 공사장 점검관리, 방재물자 비축 등 도로풍수해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수단별로 지카바이러스 유입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김정환기자

맞춤형 주거급여 대상자

주거개량사업 실시

청양군 목면(면장 성삼현)은 지난 18일 맞춤형 주거급여 대상자 김모(79)씨의 집을 방문해 주거개량사업을 실시했다.

평소 지팡이 없이는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불편한 김모 어르신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주거급여 집수리 대상자로 선정돼, 이날 집 앞 마당을 포장하여 한결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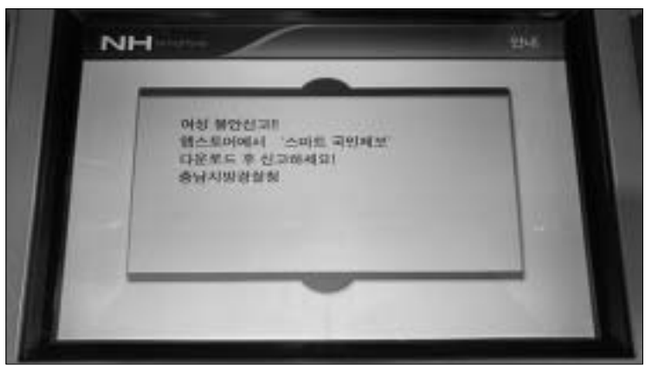
김모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하여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앞마당을 깔끔하고 편안하게 고쳐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현했다.

한편 2015년 7월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 대상자들에게 구조안전 · 설비 ·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서, 농협과 협업 여성안전 홍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위해



아산경찰서(서장 김종민)는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농협 아산시지부, 농협충남지역본부와 협력하여 여성안전 홍보에 나섰다.

'여성안전 특별 치안대책'의 일환으로 충남전지역의 농협 527개 지점 자동화기기(ATM) 2037대의 화면에 "여성 불안신고!!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국민제보' 다운로드 후 신고하세요 충남지방경찰청"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수요자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스마트국민제보 앱은 평소 불안하다고 느꼈던 장소나 사람에 대해서 사진 동영상등을 이용해 제보하면 범죄예방진단팀(CPO) 경찰관이 현장진단 후 조치 및 개선 결과를 제보자에게 다시 통보해 주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경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조달청, 정부3.0 일하는 방식 · 조달 관행 개선 추진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7월 20일 편리하고 투명한 조달서비스 개선을 위해「일하는 방식 및 조달관행 개선」50개 과제를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 과제는 조달청이 지난 4월 내부 직원, 기업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접수된 326건의 제안 중, 내 · 외부 전문가 심사와 실행방안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공모에서 채택된 제안은 총 93건인데, '불필요한 일 줄이기'(16건), '조달관행의 합리적 개선'(12건), 기업 및 수요기관의 불편해소 '(22건) 총 50개 과제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나머지 43건은 소관부서에서 즉시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은, 상용 소프트웨어(SW)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연장을 허용(기본 2년, 연장 2년)하여 계약갱신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려는 물품의 가격 · 사양 등을 쉽게 비교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개선하는 등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조달서비스를 한층 편리하게 개선하는데 집중됐다.

한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가격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하여,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가격을 부풀리는 행위 등도 원천 차단키로 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공직자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조달청이 기관 간 신속하고 긴밀한 협업 등을 통해 투명하고 편리한 조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봉관기자

정동교 광해관리공단 광해사업본부장

우수기 대비 특별안전점검 실시

정동교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사업본부장은 19일 충청지사 관내 보령석면광산토양복원사업 현장 등 주요 사업지에 대해 우수기 현장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현장특별 안전점검에서는 사업지의 인력 배치 및 안전관리현황과 안전조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시공물 균열여부, 사업자재 관리상태, 토사 유실여부, 비상연락체계 수립 및 정상가동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정동교 본부장은 "우수기 안전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병배기자

공주시, 금년 상반기 조사 · ·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유치 효과

농촌체험관광객 전년대비 20% 증가

공주시(시장 오시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주시를 방문한 농촌체험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5473명보다 7154명 증가한 4만 2627명으로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체험농가의 인프라 구축 ▲농촌체험휴양마을 · 체험농가 운영자의 지속적인 역량강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농촌체험관광객 유치활동의 전개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올해 초 '공주시 농촌체험여행'이라는 홍보 책자를 제작해 대전 · 세종 · 충남지역 교육청, 유치원, 초 · 중교에 배부했으며, 초 · 중교 체험학생 확보를 위해 직접 방문을 통한 유치활동을 벌였다.

또한, 지난 5월 개최된 석장리 세계구석기축제 기간에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공주시만의 차별화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집중 소개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공주시 시정발전연구과 농촌관광팀 최학현 팀장은 "하반기에는 홍보 책자를 추가 제작해 수도권과 전국 대도시까지 확대 홍보할 계획"이라며, "블로그단 초청 팸투어 실시, 전국단위 대규모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 농촌체험 관광객 유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배재대 체육부 '2016 대학운동부 지원 사업' 2년 연속 선정

"축구 · 양궁 · 볼링 3종목, 지원금 2700여만원 받아"

배재대(총장 김영호)가 18일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의 '2015 대학운동부 지원 사업' 에 이어 '2016 대학운동부 지원 사업' 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운동부 운영비를 지원받아 대학운동부의 경쟁력 강화 및 엘리트스포츠 진흥 유지를 도모한다.

배재대 체육부의 전년도 사업실적으로 ▲축구부는 제11회 전국1,2학년대학축구대회에서 3위에 입상하였으며 졸업생 4명이 실업팀과 프로팀으로 진출하였다.

▲양궁부는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2학년 최재환 선수가 개인종합 2위, 3학년 곽동훈 선수가 50m 2위, 30m 3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4학년 최은규 선수가 2016년 컴파운드 국가대표 재야선발전에서 1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볼링부는 3학년 김경태 선수, 1학년 정은서 선수가 볼링청소년국가대표 상비군 발탁되었으며, 전국체전 볼링 대학부 단체전 3인조 3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정복기자

충남 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 개점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당진지점이 7월 19일 이동순 충청남도 기업통상교류과장, 김홍장 당진시장, 김명선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성만 당진시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주요 기관 · 금융회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NH농협은행 당진시지부 4층에 위치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충남신보) 당진지점은 앞으로 당진시 소재 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보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당진지점에서는 보증지원뿐 아니라 고객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북까페를 설치하여 영업점 공간을 당진시민 전체가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개편하였다.

그 간 당진시는 충남도에서 인구 및 사업체 등 경제 규모가 3~4위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충남신보 지점이 없어 당진시의 소기업 · 소상공인들이 서산이나 아산까지 방문해야 하는 등 보증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당진시는 당진지역 소상공인의 보증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충남신보 당진지점 신설을 2016년 당진시 10대 핵심과제로 결정하여 추진하였고, 충남도의회 및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개점식에서 김홍장 당진시장은 "충남신보 당진지점 개점은 나날이 발전하는 당진시 지역경제가 더욱 발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성은 있지만 담보가 없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당진지역 1만여 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신보 조성일 당진지점장은 "충남도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당진 지점을 설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당진시 소상공인 특성에 맞는 보증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한기자

KAIST 창업원-블루포인트파트너스

'제1회 린스타트업 캠프' 개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주목받는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국내에서도 운영된다.

KAIST 창업원(원장 김병윤)과 (주)블루포인트파트너스(대표 이용관)는 다음달 12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킨스타워에서 '제1회 린스타트업 캠프'를 개최한다.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기업가 에릭 리스(Eric Ries)가 개발한 '린스타트업(Lean Startup)'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최소한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고객반응을 살핀 후 다음 사업계획서에 개선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적합한 사업모델을 찾는 과학적 창업 방법론을 말한다.

미국 MS사의 이노베이션센터 등이 창업 및 혁신을 가르치기 위해 린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채택해 운영 중이다.

이번 캠프에는 세계적 스타트업 전문기관의 멘토들이 대거 참여한다. 차이나 액셀러레이터의 윌리엄 바오 빈(William.Bao.Bean), MS코리아의 김대웅 부장, MS 벤처스의 앤디 셔넌(Andy Shannon), 린스타트업 머신의 트레버 오엔스(Trevor Owens)대표 등이 참여해 참가팀을 대상으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복기자

"일부 렌터카 업체, 차량관리 소홀"

한국소비자원, 렌터카 업체의 자동차 대여 · 관리실태 조사결과

매년 여름 관광지를 중심으로 렌터카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여사업자의 자동차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5년 전국의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는 총 6,233건으로 전년(5,639건)보다 10.5% 증가했다. 사망자수는 119명으로 전년(91명)보다 30.8% 증가했는데, 특히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운전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21~30세가 43.7%(52명)로 가장 많았다. 월별로는 7월과 8월에 사고가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체 차량사고 대비 렌터카 사고건수와 사망자수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여름 휴가철 관광 목적으로 렌터카를 많이 이용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렌터카 이용이 활발한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 업체의 자동차 대여 · 관리실태를 조사했다.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관광이 활성화된 서울과 제주의 렌터카 영업소 30곳의 자동차 30대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총 7대(23.3%)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항목은 '제동등 미점등', '번호등 미점등', '조향륜 정렬불량'이 각 2건, '타이어 마모', '속도계 오차' 각 1건이었다(항목수로는 총 8개).

이 중 차량 1대는 제동 시 자동점등을 통해 감속사실을 후행 운전자에게 알려 추돌을 예방하는 후면 제동등이 양쪽 모두 작동되지 않았고, 다른 1대는 타이어 상태가 즉시 교체해야 할 정도로 마모가 심각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었다.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수시로 자동차를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서도 사업자는 고객과 함께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정비불량 등을 발견하는 경우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업체 중 대여 시 자동차의 작동 · 기능과 관련한 항목별 이상유무를 확인해주거나 일상점검 이력을 안내해주는 업체는 한 곳도 없었으며, 대부분 차체 외관 손상유무 확인에만 그쳤다.

또한, 자동차 고장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기본공구 중 비상삼각대는 조사대상 차량 중 8대가, 타이어 펑크 시 필요한 스페어타이어나 리페어키트는 4대가 적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업체 모두 대여 시 이용자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면허의 정지 · 취소여부를 확인하는 곳은 없었으며, 운전경력에 대해서도 2곳만이 구두로 확인할 뿐이었다. 한편, 현재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정보를 조회할 법적 근거나 시스템이 없어 운전부적격자나 사고 고위험자의 판별은 어려운 실정이다.

대여 시 안전교육을 실시한 업체는 30곳 중 2곳에 불과했는데, 1곳은 임차인에게 안전운행서약서를 교부하여 읽고 서명하게 하였으며, 다른 1곳은 과속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여사업자의 자동차 일상점검 및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강화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대여 시 자동차의 이상유무를 꼼꼼히 살펴보고 운행 전 반드시 이용지역의 지리와 교통상황을 숙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서구, 여름방학 독서 교실 수강생 모집

서구 도서관에서 7월 25일부터 '여름방학 독서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독서교실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독서지도로 자발적인 독서습관 형성 및 독서 생활화를 돕고자 마련됐다.

특히, 리우올림픽을 맞아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올림픽으로 보는 세계사'를 주제로 올림픽의 역사 및 올림픽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엮어 진행할 계획이다.

어린이도서관은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갈마 · 가수원 · 둔산도서관은 8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운영하며, 수강생 모집은 도서관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박봉관기자

부여경찰서, 4대악 및 보이스피싱 예방홍보 부여경찰서(서장 조규향) 구룡파출소(파출소장 정연교)는 19일 노인들을 대상으로 4대악 근절 및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홍보활동에서는 4대악범죄의 문제성과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의 사례를 집중 홍보했다.

대전둔산경찰서 둔산사랑 동아리 피해자보호활동 대전둔산경찰서(서장 김재훈) 피해자보호 활동 동아리인『둔산사랑』회원들은 19일 오전 범죄피해자 가정을 찾아 이삿짐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을 고려 어렵게 이사를 결심했지만, 비용문제로 이사 일손이 없어 힘들어 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회원들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삿짐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주서, 아동안전지킴이집 방문 노고 격려 19일 관내 아동안전지킴이집을 방문해 그간 노고에 대한 감사인사와 꾸준한 활동을 당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공주경찰서 지구대 · 파출소 직원들은 각 관내에 아동지킴이집에 방문해 범죄 신고자 역할및 치안유지 활동의 노고에 대한 감사인사로 격려품을 전달하고 아동의 안전을 위해 꾸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산소방서, 안전을 배우는 어린이 소방안전교실 인기 19일 소방서 소방안전체험장에서 승마어린이집 교사와 원생 30명을 방문해 어린이 눈높이 소방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화재 등 재난상황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 소방교육과 다양한 소방체험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소방안전 상식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진행됐다.

청양소방서, 국민행복 소방정책 보고회 개최 지난 18일 3층 회의실에서 2016년도 국민행복 소방정책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류석윤 소방서장의 주재 하에 각 팀장 및 담당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가지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고 진행됐다.

천안서북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 강화 오는 9월 30일까지 여름 휴가철 음주교통사고 사상자 최소화를 위해 음주운전 취약지 홍보 및 단속 강화등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상반기 환경법규 위반사업장 26곳 적발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등 35건 위반…고발 · 행정처분 조치

충남도는 지난 상반기 도내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업장 26곳에서 3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와 시 · 군, 환경보전협회, 금강유역환경청 등이 합동으로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도내 131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3곳 ▲배출(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곳 ▲방지시설 고장 방치 2곳 ▲자가측정 미이행 1곳 ▲운영일지 미작성 7곳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4곳 ▲기타 법령 위반 7곳이 적발됐다.

도는 이 가운데 위반사항이 엄중한 5곳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와 함께 충남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또 도는 환경보전협회(☎ 042-486-8056)와 함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도 · 점검을 실시해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환경법령 위반 및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국번 없이 128번이나 도 환경관리과(☎041-635-444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한기자

daejeontoday.com

대형화재 취약시설 대상 현장방문

당진소방서, 각종 안전사고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

당진소방서(서장 방상천)는 지난 18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대형화재 취약시설 점검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약대상에 대한 지도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당진화력본부를 시작으로 대형화재 취약대상지 4개소를 방문해 관계자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강화 및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간담회 및 자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애로 ·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방상천 당진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 취약 대상인 경우 다수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예상 된다"며 "경영주 중심의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당진 =최근수기자

중구,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지도점검 실시

150㎡ 이상의 중대형 일반 · 휴게음식점 대상

중구는 오는 22일까지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의무적용 대상인 150㎡ 이상의 중대형 일반 ·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지도 ·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사전 실태조사와 계도활동을 완료하고, 2개반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일반음식점 420개소, 휴게음식점 51개소 등 모두 47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펼친다.

점검내용은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표시위치, 품목수, 최종가격 표시 등의 적정 여부 ▲외부 가격표시물의 가격과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이다.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에 출입하기 전에 메뉴별 가격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도 및 합리적인 선택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한편 옥외가격표시제의 가격은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으로 부가가치세와 봉사료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 가격을 말한다.

구 관계자는 "가격표시는 실외 입간판, 배너, 현수막 형태의 이동형 간판에 게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크기, 형태 등이 도로미관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서산소방서 음암면 전담의용소방대

관내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서산소방서 음암면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난 18일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음암면 관내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했다.

보급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해 마련한 것으로 음암면전담의용소방대원들은 음암면 관내 28개 마을을 직접 방문해 감지기 설치 및 주민 홍보를 실시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아산署, KTX 천안아산역 대테러 순찰 활동 강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시설 점검 및 경계 · 경비 강화를 통한 테러 예방 활동 전개

아산경찰서(서장 김종민)는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테러 등 위험에 대비해 KTX천안아산역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시설 점검 및 경계 · 경비 강화를 통한 테러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장재파출소 소장 하우용 경감 이하 소속 경찰관 6명은 지난 7. 18. 15:00경 KTX 천안아산역에서 '국민 모두가 테러 감시자가 되자'라는 리플릿을 배부, 테러범과 의심물체 발견시 신고요령을 홍보하고 시설주에게 자체방호 인력 순찰시 주요 착안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대테러 예방 홍보활동은 지난 14일, 프랑스 니스 시내에서 한 남성이 화물트럭을 몰고 '바스티유 데이(프랑스 혁명 기념일)' 축제 후 인도를 보행하던 군중들에 돌진해 80여명을 사망하게 한 테러와 관련해 한국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국민 불안 증대에 따라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설주와 협업을 위한 비상연락망 강화 등을 위함이다.

특히 KTX천안아산역 관계자 및 역사 이용객들은 경찰관이 역사를 자주 순찰하고 친절하게 각종 폭탄테러 유형, 장소별 · 형태별 테러 식별요령과 신고요령을 알려 주니 테러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하우용 소장은 "KTX 천안아산역은 국가 중요시설로 테러 대비를 위해 주 · 야 1일 4회에 걸쳐 다목적 연계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시설주와 역사 이용객 상대로 테러 예방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테러로부터 안전한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법무보호공단대전지부 취업재정위원회 "봉사활동 실시" 권기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의 취업재정위원회장은 지난 1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박태규) 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 3명에게 장학금 전달과 숙식대상자들에게 초복맞이 석식 삼계탕을 지원했다. 그리고 김은희 위원은 수용생들에게 무료 이 · 미용봉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70% "직장 내 불필요한 회의 많다"

근절되어야 할 회의 1위,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되는 '불필요한 회의'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직장 내에 불필요한 회의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최근 직장인 739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회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의 '회의 현황'을 조사했다. 잡코리아 조사 결과, 직장인들은 하루 평균 1회(41.5%)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회의 시간은 15분~30분미만(34.4%), 참석하는 회의는 '같은 부서원들과 하는 회의(72.3%)'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회사의 '회의 스타일'은 회의 전 주제와 목적을 공유해 빠르고 짧게 결론을 내는 '속전속결형 회의'(26.3%)가 가장 많았고 상급자 의견 위주로 진행되는 '권위형'(25.8%) 회의, 길게 회의 했지만 결론 없이 다음 회의 일정을 잡는 '오리무중형'(16.0%) 회의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잡코리아가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에게 '현재 회사에 불필요한 회의가 많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69.6%의 직장인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회의 문화에 만족하는지' 묻는 질문에도 62.0%의 직장인들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이 '현재 회의 문화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복수응답) '결론 없이 흐지부지 끝날 때가 많아서'라는 답변이 40.0%의 응답률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회의의 진행과 구성이 비효율적이어서(37.6%)', '상급자 위주의 수직적인 회의가 많아서(37.1%)',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31.0%)'라는 답변이 높은 응답률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회의 문화에 만족한다고 답한 직장인들이 꼽은 이유로는(*복수응답), '비교적 빠르게 끝나기 때문에(40.2%)',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어서(40.2%)', '사전에 회의 주제, 목적 등을 공유해 효율적으로 진행해서(39.1%)' 등이 있었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2명 중 1명은 앞으로 회의문화가 개선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직장인들에게 '앞으로 귀하 회사의 회의 문화가 개선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자 '그렇다'는 답변이 55.2%를 기록했다. 반면 '아니다'라고 답한 직장인은 44.8%였다.

직장인들이 뽑은 회의 문화 개선을 위해 근절되어야 할 관행으로는(*복수응답) '안건이 없음에도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되는 불필요한 회의(51.4%)', '회의는 했으나 결론 없이 다음 회의 일정만 잡고 끝나는 결론 없는 회의(46.8%)', '회의 관련 사항을 회의에 참석해서야 들을 수 있는 준비 없는 회의(22.3%)', '상급자의 반말, 의견 무시 등으로 얼룩진 예의 없는 회의(18.1%)' 등이 있었다.

이정복기자

대전시교육청,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운영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의 안전하고 질높은 돌봄서비스 제공 위해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여름방학 중에도 맞벌이 · 저소득층 ·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의 안전하고 질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대전시교육청의 여름방학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향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여름방학 중에도 돌봄교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교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기존 돌봄교실 참여 학생 중 희망자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의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각 학교에 안내하고, 방학 중 돌봄교실 참여학생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안전 취약 분야의 사전 점검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수요가 적어 학교 여건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 인근학교 또는 지역의 돌봄기관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태안 근흥초 모래놀이 체험 펼쳐 태안 근흥초(교장 박철호)가 오감만족 모래놀이 체험활동을 펼쳤다. 학교 인근에 위치한 연포해수욕장의 모래사장에서 실시한 이번 모래놀이는 4~6명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진행했다.

아산교육지원청, 자유학기제 개선 연수

'2016 교육과정 재구성 및 평가방법 개선' 주제로 실시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은 지난 18일, 아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학교 1학년 담당교과 교사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2016 교육과정 재구성 및 평가방법 개선'을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 연수는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인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재구성, 평가방법 개선, 수업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라는 필요성에 의해 마련됐으며, 혁신학교 및 자유학기제 운영 선진학교인 군산 회현중학교 이기종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평가방법 개선'에 대한 강의로 구성됐다.

이 연수에 참여했던 온양중 이은영 교사는 "혁신학교 및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수업개선에 대한 연수 및 선진지 학교 견학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었으나 평가방법 개선에 대한 연수는 이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기 어려워 곤란했었는데 오늘 이 분야의 연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또한, 허삼복 교육과장은 "자유학기제는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학생들의 수업과정을 서술형으로 기록하는 방향으로 평가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배움중심수업에 따른 평가의 방향 및 방법을 배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교육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충남도교육청 간부 공무원들, 학교 관사 안전실태 점검

지난달 도서지역 초등 8개교 방문 완료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달 13일부터 23일까지 김지철 교육감, 김환식 부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들이 도서지역 학교 관사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사 출입문 잠금장치 보완, 관사 주변 CCTV, 방범창, 안전벨 설치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업 예산 배정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도서지역 학교 근무 교사들에 대한 인사 우대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업무추진(TF)팀 협의회를 갖기로 했으며, 마을주민과 학부모, 치안센터와의 유대 강화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지역주민 대상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은 지난달 외연도초 등 도내 도서지역 초등학교 8개교를 방문해 현장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지역주민들은 간담회에서 ▲노후 관사 보수 ▲학교 울타리 및 교문 설치 ▲운동장 배수시설 정비 ▲도서지역 영어교육 지원 ▲예술 관련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 ▲학교 인터넷 속도 개선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등을 요청했으며, 도교육청에서는 긴급한 시설보수는 8~9월중 수선을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방과후 강사는 맞춤형 순회강사를 채용할 계획이다.

이정복기자

양지고, 선배와 함께하는 진학 토크콘서트

양지고등학교(교장 이승표, 이하 양지고)는 지난 15일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배와 함께하는 진학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최근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중심 전형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학생들과 눈높이에 맞는 대화를 통한 대입준비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 후배들의 대입준비 멘토로 나선 장소연(이화여대 1학년 유아교육과), 박소망(고려대 1학년 식품공학과) 강사는 재학 중인 학교 및 학과에 관련된 내용과 대입을 위한 효율적인 학습전략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또한, 개인별 질문을 써붙인 포스트잇으로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대입상담 시간도 가졌다.

세종=이정복기자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 위한 워크숍

청양교육지원청,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활성화 적극 지원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중철)은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고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 학습 동아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 18일 정산중, 청남중, 장평중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사학습 공동체 「청양 산동 자유학기 연구회」에서는 학생 중심 수업 활동 강화를 위한 질문이 있는 수업을 중심으로 한 토론과 소규모 학교의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를 위한 방안을 토의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자유학기가 전면 시행되는 2016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기 전, 여름 방학을 맞아 질문이 있는 수업, 온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인재 만들기라는 주제로 교사학습 공동체의 수업 방법 혁신을 위한 방안 및 방학 중 워크숍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청양교육청 교육과장(윤종옥)은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교사연구회의 활동을 청양교육지원청의 다른 교사에게도 파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산동자유학기 연구회에서는 여름 방학 중 교사 연찬을 위한 다양한 워크숍 계획을 세우고 연구회 이외의 교사들과도 공유하며 수업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청양=정상범기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중 · 고 미술실기대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규)는 7월 16일 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 논산동성초등학교 일원에서 제48회 논산계룡 중 · 고등학생 미술실기대회를 실시하였다.

올해로 48회째를 맞는 논산계룡 중 · 고등학생 미술실기대회는 풍경화, 정물화, 한국화, 판화, 조소, 소묘, 디자인, 만화, 서예 등 14개 종목이 개최되었는데,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중학생 118명과, 고등학생 124명, 총242명이 참가하여 우수한 기량을 발휘하였다.

16일(토) 논산동성초등학교 샛별관에서 실시된 개회식에서 김재숙 교육과장은 "현대사회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창의성과 예술성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며 "오늘 대회를 통해 동양의 피카소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대회 우수학생 시상은 종목별 참가학생의 비율에 따라 학생과 지도교사에게 교육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우수작품 59점은 충남도대회에 출품되며 입상작은 8월 27일(토) 충남교육연수원에서 개최되는 충남학생미술축제에 전시 작품으로 활용된다.

논산=김태선기자

aT · 구리시, 정부3.0 맞춤형 교육으로 일자리 창출 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 농식품유통교육원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경기도 구리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리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중도매업 취업 희망자 교육"을 실시했다.

장애가족을 둔 비장애 형제 · 자매 캠프

금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긍정적 자아감 형성 도모

금산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장애인분과,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에서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1박2일간 금산 복수면 목소리테마파크에서 장애 가족을 둔 비형제 · 자매(9세~16세 및 친구 동반) 총 30명을 대상으로 캠프를 실시하였다.

캠프는 ▲참가자들의 유대감 증대 ▲가족의 공동체 의식 변화 ▲스트레스 해소를 목표로 심리극 놀이, 게슈탈트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부모, 전문가 회의), 친밀감 형성 프로그램, 촉진 프로그램(내면 표출, 현실극복, 공동체 의식 강화)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손중대 교육장은 "감수성이 풍부한 사춘기에 접어든 참가자들에게 심리적 · 정서적 유대감 형성의 기회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캠프의 주된 심리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에 대한 결속력 강화를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금산=손광우기자

"산 · 학 · 연 · 관 교류의 장 열다"

세종 바이오 · 아이티 융복합 산학연협의체 워크숍… 네트워크 강화 · 협력과제 발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20개 미니클러스터 회원사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세종 바이오(Bio, 생명)-아이티(IT, 정보기술) 융복합 산학연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종 바이오-아이티 융복합 산학연협의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인 세종테크밸리를 중심으로 세종시 소재 정밀화학, 의약, 정보통신 등 관련 기업체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워크숍은 지난 6월의 창립총회 이후, 산 · 학 · 연 · 관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과제 발굴을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기술창업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미니클러스터 참여기업에 대한 홍보방안, 협력과제 발굴 및 기업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열띤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기술창업의 성공사례를 발표한 카이스트 창업진흥원 이충환 교수는 창업기업이 초기에 겪을 수 있는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 지원사업의 적절한 활용을 강조하였고, 참여기업들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 정보에 대하여 공유하였다.

데스밸리(Death valley)는 초기 창업기업이 연구개발에 성공한 후에도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화에 실패하는 등 고난을 겪는 기간을 말한다.

또한 참여기업들은 서울대 공학컨설팅센터 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기업운영에 대한 자문을 받고, 기업들이 개발 중인 기술의 상용화 방안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신제품 개발, 시제품제작, 산업재산권 출원 등의 기업지원 계획도 마련하였다.

행복청은 앞으로 "세종 바이오(Bio)-아이티(IT) 융복합 산학연협의체"를 통해 연구개발 사업화 발굴, 특허출원, 수출방안 모색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상시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지속운영 해 나갈 계획이며, 세종시 내 유치된 기업, 대학, 연구소 간 산학연 클러스터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산학융합지구 지정도 추진 중에 있다.

홍순민 행복청 도시성장촉진과장은 "이제껏 세종시 전체를 아우르는 산학연 간의 교류의 장이 없었다" 면서 "이번 기회로 세종시 기업들간의 협업을 통해 세종시 신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내고, 나아가 중부권 전체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조치원역, 인적 · 물적 서비스 점검 코레일 대전충남본부

조치원역은 지난 18일 고객서비스 점검의 날을 맞아 황준연 조치원역장 등 접객 직원이 고객서비스 실천 결의 후 고객의 입장으로 인적 · 물적 서비스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 정

충남도 인권위원회 위촉식

안희정 충남도지사= 20일 오전 11시에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기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하고, 오후 5시 도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충청남도-인사혁신처 인사혁신 상호협력 협약식에 참석.

정책조정회의 주재

이춘희 세종시장= 20일 오후 2시 집무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

제2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황선봉 예산군수= 20일 오전 6시 30분 예산문화원에서 출발하는 특수임무유공자회 전적지 순례 참가자 격려,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참석, 오후 1시 30분 군수실에서 열리는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 사전보고 참석.

특성화고 취업박람회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 20일 오후 1시 30분에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특성화고 취업박람회』에 참석.

세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20일 오전 10시 세종시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8회 세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

충남 수소에너지포럼 개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 수소경제사회 구현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및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충남도의 과제와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도는 19일 내포신도시 충남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도민과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 수소에너지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충남 수소에너지포럼'을 개최했다.

'에너지 전환과 수소경제사회 전망'을 주제로 연 이날 포럼은 화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에너지 체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패널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종원 책임연구원이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본 수소사회'를 주제로 가졌다.

이어 열린 주제발표에서는 충남연구원 홍원표 박사가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주요 선진국의 추진사례'를 발표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양태현 PD는 '수소 · 연료전지 기술개발 및 보급계획'을 소개했다.

또 현대자동차 박종진 팀장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개발 현황'을 발표하는 등 수소 및 연료전지 분야 국제 동향과 정보를 공유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택홍 호서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창희 박사, 장봉재 이엠코리아 부사장, 채충근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장, 김정호 에너지산업과장 등이 참여,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과제와 충남의 추진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포럼에서 허승욱 부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수소 생산 · 이용 · 저장 기술 개발 필요성을 강조한 뒤 "충남도는 21세기 대한민국 수소시대 구현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차분히 준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한 기자

중국인 관광객 유치 구슬땀

여름 축제가 충남도 내 곳곳에서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도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도는 19일 중국 전담 국내 8개 대형 여행사 관계자 15명을 초청, 도내에서 팸투어를 실시했다.

2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마련한 이번 팸투어는 중국인 관광객이 선호하고, 방문 가능성이 높은 축제와 체험지 위주로 구성했다.

도는 이날 우선 여행사 관계자들을 보령머드축제 현장에 안내하고, 대천해수욕장 백사장에 설치된 '스카이바이크' 체험도 갖도록 했다. 또 부여백제문화단지와 아산 외암민속마을, 도고파라다이스 등도 소개하고, 백제토기 만들기 체험도 선보였다.

도는 이번 팸투어가 관광 상품화 가능성을 높이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홍우 도 관광산업과장은 "팸투어 참가 여행사들은 모객 능력이 검증된 수도권 지역 여행사로, 앞으로 충남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 상품을 만들 경우 도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한 기자

홍성군 폭염대비 T/F팀 운영

취약계층 보호 무더위 쉼터 지정 등 냉방비 지원

홍성군은 올해 이상기후로 인하여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오는 9월말까지 폭염 상황 총괄 관리하기 위해 '폭염대비 T/F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운영되는 폭염대비 T/F팀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무더위 쉼터를 지정 · 운영하고,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무더위쉼터에 냉방비를 지원한다.

군 보건소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 건강위험군-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고령자,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안부 전화를 비롯하여 방문 건강 체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경로당을 방문하여 열사병, 열 탈진 등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수칙을 교육하면서, 폭염 시 생활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관공서, 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의 이용도 홍보하고 있다.

군은 노약자를 비롯한 건강위험군의 경우 폭염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매일 기상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물을 자주 마시고 항상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강조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119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웃집 또는 친지와의 연락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폭염 대비를 위한 행동요령도 지도하고 있다.

하광학 부군수는"폭염특보 발령 시 낮 시간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할 경우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물병을 휴대하는 것이 좋다"며,"군민 모두 폭염대비 행동요령에 따라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적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고 있으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한다.

홍성=최진우기자

예산군, 여름 휴가철 맞아 족욕장 확대 운영

"덕산 온천수 무료 체험하러 오세요"

예산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덕산온천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덕산온천 관광단지 내 관광 안내소 옆에 위치한 족욕장을 지난 18일부터 확대 개방하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학 한 마리가 날아와 사흘간 부러진 다리를 치유하고 갔다는 전설'을 품고 있는 덕산온천은 지구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분출되는 온천수가 어머니의 젖과 같은 효능을 지녔다 해 이름 붙여진 '지구유'의 발원지로 유명하다.

또한 20만명의 관광객이 운집한 2014년도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가 열린 곳으로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는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 동안 2016년도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와 함께 충남권 최초로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가 개최되는 곳이다.

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덕산온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즐거운 온천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는 10월 개최되는 축제와 박람회를 알리는 한편 덕산온천의 우수한 효능을 알리고자 실내 족욕장과는 별도로 실외 족욕장을 확대 개방하고 있다.

실내와 실외 족욕장 모두 온천수가 공급되며 관광객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실내 족욕장에는 41℃의 뜨거운 온천수가, 실외 족욕장에는 냉 온천수가 공급돼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족욕장은 오는 10월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덕산에서 용출되는 온천수의 경우 약 알칼리성 중탄산나트륨 성분이 근육통과 관절염을 완화시키고 혈액순환과 세포재생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온천탕에 몸을 담그는 자체만으로도 피로를 풀 수 있다"며 "낭만과 힐링이 있는 덕산온천에서 멋진 추억을 만드실 수 있도록 정성껏 모시겠다"고 말했다.

예산=이상화기자

고복야외수영장 무료개장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고복자연공원에 있는 야외수영장을 무료로 개장한다.

고복야외수영장(세종시 연서면 용암리 315-1)은 야외수영조, 미끄럼틀, 쉼터용 그늘막과 주변에 탈의실 및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세종시는 안전사고 방지와 응급처치를 위해 안전관리요원, 간호인력 등을 배치하고 수영장 시설보수, 운영요원 위탁교육 등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동시 입장 인원은 500명 이내로 제한한다.

이용시간은 우천 시를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정환기자

세종시 복지재단 추진위원 모집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복지재단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26일까지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설립추진위원은 15명 내외로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타 지역 거주자라도 세종시 지역의 기관, 단체, 기업, 대학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립추진위원은 복지재단 출범까지 활동하게 되며 ▲재단 설립 기본방향 ▲조직설계 및 인력규모 ▲사업범위 및 기능 등에 관한 자문역할을 맡게 된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경력증명서 등을 갖추어 26일까지 시 복지정책과(044-300-3315)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ojs3093@korea.kr)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사회정책조정 담당(044-300-3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세종시는 공공복지의 책무성을 보완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재단을 2017년 7월까지 설립할 예정이다.

세종=김정환기자

야마기시일본 효고공원 원장 황새방사행사 축하 야마기

시 일본 효고공원 원장 등 3명의 일본인이 지난 18일 시목리 단계적 방사장에서 열린 방사 행사에 참석 황새의 비상을 축하했다.

홍성군 학교 밖 청소년대상 무료 건강검진 신청접수

홍성군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10월말까지 무료 건강검진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진 대상은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1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건강관리에 취약한 청소년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후 미대상자에 한해 건강검진이 가능하다.

군은 재학 청소년에 비해 소홀해질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발육 상태 확인,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2016년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검강검진사업을 처음 시행하고 있다며 6월말까지 7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신청했다고 전했다.

신청방법은 홍성군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문진 및 진찰, 혈액검사, 간염검사 및 구강검사 등 기본 검진과 추가 검진 대상 청소년은 추가검진이 가능하며,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년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을 활용한 추가 치료지원도 이루어진다.

홍성=최진우기자

세종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돕기 성금지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난치병을 앓고 있는 세종 관내 학생 13명에게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온정을 나누는 마음을 담아 2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성금을 받은 학생들은 가정형편이 어렵고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돼 외부 도움이 손길이 절실한 학생들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시교육청에서 지원대상자를 심의 후 선정했다.

이번 성금은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치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해당 학생과 가족에게 삶에 대한 의지와 용기를 주고자 지원됐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교육청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온정의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교육계로부터 시작된 나눔의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가 정착되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10명의 난치병 투병학생에게 총 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이정복기자

동 정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복기왕 아산시장= 20일 오전 10시 시장실에서 열리는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참석.

심소학교 대표단 영접

김홍장 당진시장 = 20일 오후 5시 30분 시청 접견실에서 중국 옥환현 옥환성관중심소학교 대표단을 영접.

제8차 본회의

이종윤 당진시의장= 20일 오전 10시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

민원상담관 정례보고회

한상기 태안군수 = 20일 오후 4시 군수실에서 열리는 민원상담관 정례보고회에 참석.

자율방범대장 취임식

이석화 청양군수 =20일 오전 10시 청양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국제문화교류단 청양군지부 국악캠프에 참석한 후, 오후 5시 운곡면사무소에서 열리는 운곡면자율방범대장 취임식에 참석.

18년 만에 '새 얼굴' 선보여

태안군, 역사성과 상징성 · 정체성 표현한 심볼마크와 캐릭터 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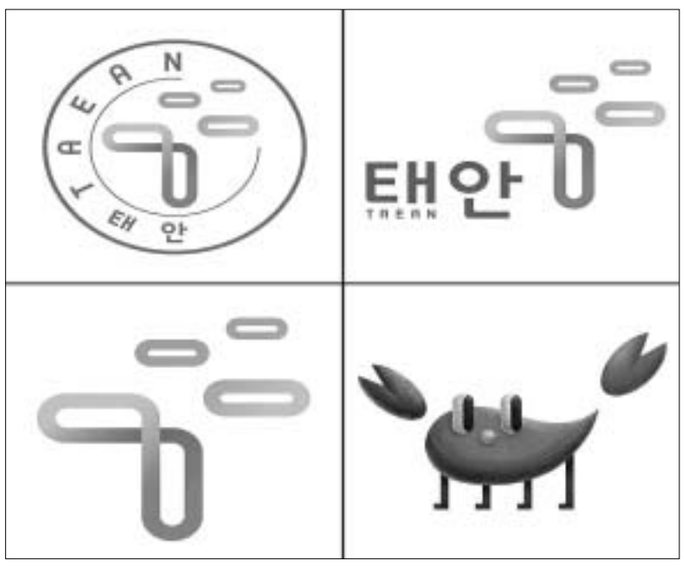
태안군 18년 만에 독창성과 가치를 표현하고 표준디자인(CI, Corporate Identity)이 18년 만에 새로운 얼굴로 선을 보인다.

군은 지난 1998년 제작된 기존 표준디자인이 시대성 및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평가에 따라, 태안만의 역사성 · 상징성 · 정체성을 표현하고 미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신규 표준디자인 개발을 해 왔다.

태안군. 6만 3천여 태안군민을 하나로 결집시킬. 심볼마크와 캐릭터를.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지었다고 18일 밝혔다.

새롭게 제작된 군 심볼마크는 태안(Taean)과 관광휴양도시를 상징하는 'Travel(여행)', 다양한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을 상징하는 'Treasure(보물)'의 이니셜 'T'를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태안의 섬을 상징하는 3개의 유닛은 각각 ▲태안의 미래 ▲행복한 태안의 희망 ▲발전하는 태안의 열정을 의미하며, 다양한 컬러가 조화롭게 변화되는 이미지를 통해 다채로운 문화콘텐츠와 축제가 있는 관광휴양도시 태안의 정체성을 표현해냈다.



심볼마크와 함께, 군은 태안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인 꽃게를 활용, '태(泰)안의 바닷물결(浪)'을 뜻하는 캐릭터 '태랑이'를 선보였다.

꽃게를 형상화한 캐릭터 '태랑이'는 부드러운 곡선을 통해 태안에 접한 바다의 물결을 상징적으로 나타냈으며, 빛바랜 질감을 넣어 따뜻하고 정감 있는 느낌을 강조하는 등 태안군의 친근한 이미지를 표현해냈다.

군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교수 등 전문가 5명을 선임해 수차례 사례분석 및 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이번 표준디자인 선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새로운 표준디자인은 18일부터 공표돼 태안군의 대표이미지로 사용되며, 군은 이번 신규 표준디자인을 대내 · 외에 적극 홍보해 태안군 새 얼굴 알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한상기 군수는 "태안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은 이번 신규 표준디자인은 태안군의 미래 발전을 함께 할 새로운 얼굴이 될 것"이라며 "태안군의 신규 표준디자인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아산시 초 · 중등학교 교사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시행

아산시는 지난 16일 전국 초 · 중등 수석교사 34명을 대상으로 농촌뜨락협동조합 및 외암민속마을 일원에서 사회적경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이민규 주무관은 "학교 공교육 제도는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포함하여 지역 내 농 · 수산 먹거리 생산물이 내부거래 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학교 공교육이 학교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동조합고랑이랑의 박사라 이사장은 "고랑이랑이 송악지역에 협동조합을 설립한 이유와 지역농민과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제4기 전국수석교사회 하계 워크숍과 병행해 추진된 이번 교육은 부산, 강원 등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에게 아산의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홍보하는 부수적인 성과도 달성하며, 이러한 사회적경제 현장교육을 통해 기초지자체가 공교육 일선 수석교사와 함께 학교 내 사회적경제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

유선종 사회적경제과장은 "초 · 중등 수석교사와 함께한 이번 교육을 통해 범 전국적으로 학교 내 매점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거나, 지역 내 1차 · 2차 농 · 수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바로 소비하는 건강한 먹거리 운동이 펼쳐지기를 희망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교육의 현장에 협동조합이라는 제도적 기업을 통해 생동감이 가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아산시에는 12개 고용부 인증 사회적기업, 16개 충남형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9개 마을기업과 4개 사회적협동조합과 43개 협동조합 기업이 운영 중에 있다.

아산=리량주 기자

김장 김치용 배추 우량묘 신청 받아

청양군, 100만주 공급…28일까지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김장김치용 가을배추 우량묘 100만주를 공급하고자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되는 배추는 연작지에 주로 발생하는 무사마귀병에 강한 내병계 품종으로 결구력 및 수송성이 우수하다.

또 결구내엽이 황색이고 중륵의 두께가 얇으며 수분함량이 적어 절임배추용, 김장 전용으로 맛이 우수한 품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배추묘 가격은 105공상자 당 3000원이며, 8월말 마을별 배송될 예정이다.

한편 배추는 초기생육이 왕성해야 후기 결구가 좋으므로 밑거름에 중점을 두어 퇴비 등의 유기질 비료를 충분히 사용하고, 밑거름의 양은 10a당 질소 20~26kg, 인산 12~20kg, 칼리 20~30kg 정도 시용하면 된다.

청양=정상범 기자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

당진시, 내달 말까지 집중단속 · 과태료 부과

당진시가 오늘부터 내달 31일까지 관내 주택가와 아파트 주변 등이면도로의 불법주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을실시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주기장을 설치해 주기토록 명시돼 있으나건설기계 소유주 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이유로 공사현장 주변이나 운전자 집 주변 공터 등 한적한 곳에 세워두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있다.

당진시는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덤프트럭과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불법주기가 더욱 성행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있다.

당진의 경우 당진12동 아파트주변 도로와 도심공원, 송악읍, 송산면 주택가를 중심으로 장기간 주기사례가 발생해 민원도 끊이지않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장기 불법주기가 성행하고 있는 해당 지역을 집중단속구역으로 정하고 주야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주기장이 아닌 장소에 불법 주기한 장비 소유자에게 1차 는 현장 계도 조치한 뒤 이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방침이다.

당진시 관계자는"건설기계의 불법주기는 인명사고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를 단속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 기자

아산시 영양교사 로컬푸드 친환경 생산지 현장체험

아산시는 지난 18일, 관내 학교 영양(교)사 40명과 함께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 식재를 공급받고 있는 생산지를 방문해 식재료 안전성 확인 및 현장체험 활동의 시간을 가졌다.

현장체험 활동은 생산지로 출발 전 수입산 유전자 변형 작물들로 제조된 가공품의 현실과 GMO의 안전성 및 대안을 고민해보는 특강 시간을 가진 뒤 지역 산 친환경 콩으로 급식에 일반두부와 순두부, 연두부, 두유 등을 제공하는 관내 농산가공현장을 방문하는 과정으로 활동은 진행됐다.

또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일반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경화제, 유화제, 소포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건강한 두부가공현장을 꼼꼼히 둘러본 후 현장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궁금한 점이나 개선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활동에 참여한 한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농산물과 가공품이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생산되는 것을 보니 깊은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앞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적극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생산지 체험교육과 학교로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급식으로 제공되는 식재의 안전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식재료 품질기준 마련 ▲식재료공급업체 위생 · 안전교육, 생산자-소비자 신뢰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자조직 작부체계구축 ▲친환경 생산자와 학교급식 연계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우/리/동/네

㈜대상, 태안군사랑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태안군 태안읍에 위치한 도 · 소매 및 운수업체 ㈜대상(대표 한상각)이 18일 군수실에서 (재)태안군사랑장학회 이사장인 한상기 군수와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기탁식을 갖고 장학금 500만원을 군에 기탁했다.

농업인 건강 · 농작물 관리 중요

청양군, 여름철 푹푹 찌는 폭염 · 무더위행동요령 홍보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여름철을 맞아 폭염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 시 농작업 및 농업인 행동요령 홍보에 나섰다.

보통 폭염이란 사람이 외부 노출 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기온과 상대습도에 이를 때를 말하는데, 일 최고 기온이 33℃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내린다.

또한 같은 기간에서 35℃이상의 기온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는 폭염경보를 발령해 피해를 막고 있다.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 더운 날씨라 하더라도 시기별 작업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 작업시기를 놓치게 되면 작물 생육, 또는 농산물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일반인과 달리 폭염특보가 발령되더라도 더위를 무작정 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방법이 필요하고, 또 반드시 지켜야 더위에 의한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폭염특보가 내렸을 때 사전 준비사항은 집에서, 또는 작업장에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과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는 것이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작업 중 휴식시간을 오랜 시간 갖기보다 짧게 자주 갖는 것이 좋으며, 시설하우스나 야외작업 시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과 염분(1ℓ의 물에 소금 1/2작은술)을 섭취해 탈수증을 예방한다.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시설하우스나 야외작업을 금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가족, 친지나 이웃이 수시로 건강상태를 점검해야한다.

한편, 청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 시 농작업을 하는 농업인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시간을 비교적 시원한 아침 또는 저녁시간으로 정해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마치고, 폭염에 의한 열사병 등 재해가 발생하면 침착하게 응급처치 요령에 따라 행동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청양군 착한가게 17개소 단체 가입

올해 5번째 단체가입 영예…중소자영업계 이웃돕기 앞장

충남 청양군에서도 착한가게 나눔문화가 확산되고있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관형)는 지난 18일 오후 2시 청양군청 2층 상황실에서 이석화 청양군수, 박정숙 충남도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장, 이강희 청양군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장, 정진옥 충남모금회 사무처장, 착한가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양군 착한가게 단체 가입식'을 진행했다.

청양군은 홍성군 광천읍, 홍성군 서부면, 금산군, 서천군에 이어 5번째 착한가게 단체 가입식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단체 가입식은 군청과 군민들이 하나가 되어 17개소를 발굴해의미가 더 컸다.

이날 가입한 착한가게는 ▲화성토건(주) ▲명랑식당 ▲청학동오리마을 ▲식당백미 ▲일수건설 ▲쇼미더헤어 ▲정성약국 ▲상상디자인 ▲청심디지털 ▲LG종합전자랜드 ▲대명회관 ▲서궁일식 ▲대성농림물산 ▲명신의류 ▲시장정육점 ▲(주)청양신문사 ▲청흥지업사 이상 17곳이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청양지역의 자영업자분들이 가게캠페인에 단체로 참여하게 되어 감사를 드린다"며 "이웃을 살피고 돕는 청양군민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아주 뜻 깊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정진옥 충남모금회 사무처장은 "착한가게캠페인을 위해 하나가 되어 발굴해주신 그리고 참여해 주신 청양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풀뿌리기부문화가 확산되어 나눔1번지 청양군을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될것이라고확신한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우/리/동/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논산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국 동시 캠페인 펼쳐

서천군-폴리텍대학 학생수요 확보 순항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18일 경북 울릉고등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 3월 충남해양과학고와 5월 신안해양과학고에 이어 세 번째 관 · 학 협력 협약을 체결 했다.

논산시(시장 황명선)은 초 · 중 · 고 여름방학을 앞두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14일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및 유관기관과 합동을 전국동시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전국 동시 캠페인은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출입 제한업소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충남도청, 논산시청,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논산경찰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의경회, 엄마순찰대 60여명의 참여자들은 논산오거리, 논산역 일원을 돌며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또 청소년 흡연 · 음주 예방을 위해 편의점, 소매점, 음식점 등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술 · 담배 판매 및 청소년 고용 시 '신분증 확인 생활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김정숙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합동 캠페인을 계기로 대국민 청소년 보호의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나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논산=김태선기자

부여군 최초 공립어린이집 생긴다

사회복지법인 임천어린이집 위탁협약 체결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18일 사회복지법인 임천어린이집과 부여군 공립어린이집 위탁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규암면 LH천년나무 단지 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해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를 거쳐 위탁자를 선정, 부여군 최초로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했다.

공립어린이집은 8월부터 아동을 모집할 계획이며,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최대한 9월중 개원할 예정이다.

공립어린이집은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개방하고, 부모와 교사간 협력으로 열린 환경을 조성, 양질의 급 · 간식을 제공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공립어린이집이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도록 운영을 지도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여 =이정복기자

천안시 친환경농산물 소비 · 유통, 생산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천안시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따른 고비용 인식전환과 소비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으로 조성되며 목표액을 53억원(국비50%, 자조금50%)으로 책정하여 운영 계획이다.

현재 관내 대상농가 305가구 중 273가구(90%)가 동의서를 제출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및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 및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금의 운용방향은 친환경농산물의 대국민 홍보를 통한 판로확대, 수급안정, 소비촉진 및 교육 연구에 쓰여지며 참여대상 농가는 1천㎡이상 유기 · 무농약인증 농업인이 참여하게 된다.

대상농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시 인증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에 ㎡당 유기 논 4원, 밭 5원, 무농약 논 3원, 밭 4원을 납부하여 조성하게 된다.

천안시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를 시행하여 정착하게 되면 소비자의 인식 전환과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천안 =김정환기자

농업전문가 군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여사무소 이광구 소장 농림녹지 분과위원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18일 친환경 농산물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여사무소 이광구 소장을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 농림녹지 분과위원으로 위촉했다.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군민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9개 분과 6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계획 청취 및 자문, 워크숍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광구 자문위원은 부여 발전의 양대 축인 농업분야에서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팜 사업 등 선진 농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이며 앞으로도 각 분야별로 실무와 지식이 결합된 전문가를 발굴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여=이정복기자

우리는 신나는 시장에서 장사한다

서천특화시장, 상인 동아리로 뭉쳤다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이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다. 개설된 동아리는 노래교실과 요가교실 그리고 합창교실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이 상인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추진했다.

동아리는 시장상인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는 상인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로 이어져 모집인원을 웃도는 인원이 7월 첫 모임을 가졌다.

동아리 모임은 상인들의 스트레스와 문화적 갈증 해소는 물론 서천특화시장의 단합에도 크게 기여해 건강하고 행복한 시장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리 활동은 7월부터 11월 말 까지 5개월 동안 각 동아리별로 주 2회씩 고객센터 2층에서 진행되며 연말에 발표회를 통해 2016년 동아리 활동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앞으로 시장상인회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은 동아리 활동을 다양화 하고 지역의 축제와 시장 홍보에 참여하는 등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하고 있다.

구재칠 서천특화시장 상인회장은 "그동안 상인 간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했다며 동아리 활동으로 서로 함께하는 서천특화시장이 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서천=김태선기자

계룡도서관 서민 교수의 '기생충 강연' 성료

수준 높은 강연으로 시민들의 인문학 관심 제고

계룡시 공공시설사업소(소장 허염)는 지난 16일 계룡도서관에서 기생충학 박사인 서민 교수를 초청 '기생충과 인간과의 공존'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세 번째 주제인 '과학의 시대, 인간과의 공존을 말하다'의 마지막 강연으로 마련됐다.

서민 교수는 서울대학교 기생충학 박사를 마치고 현재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서민의 기생충 콘서트', '서민적 글쓰기', '노빈손과 위험한 기생충 연구소' 등을 출간했다.

특히, 이날 강연에는 150여 명의 지역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뜨거운 호응과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

강연에 참석한 한 시민은 "수준 높은 인문학 강연을 접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강연을 통해 인문학 분야의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네 번째 주제인 '계룡의 금서(禁書), 정감록 이야기'는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정감록, 역모사건의 진실게임' 저자인 백승종 교수를 초청하여 강연을 5회 진행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신청은 다음 달 31일부터 전화 및 방문접수로 받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도서관(042-840-3602)로 문의하거나 계룡시 공공도서관 홈페이지(lib.gyeryong.go.kr)를 참고하면 된다.

"논산 선진농업 배우러 왔어요"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 13개국 14명 농기센터 견학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우)는 아프리카 실무급 지도공무원(KAFACI) 13개국 14명이 선진농업 현장 벤치마킹을 위해 15일 논산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KAFACI(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는 아프리카 지역의 농업과 농촌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0년 농촌진흥청 주도로 시작한 다자간 협의체로, 현재 회원은 DR콩고,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19개 나라이다.

카메룬, 코모로, DR콩고 등 13개 KAFACI 회원국 관계자들의 이번 방문은 회원국의 농촌지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도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논산의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을 위함이다.

이날 방문단은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찾아 논산의 농업기술 현황을 청취하고 과학영농시설을 견학했다.

또 논산지역의 우수시범사업장인 파프리카 온실, 딸기체험장을 방문해 선진화 된 논산농업재배기술을 벤치마킹하며 우리지역의 우수 농업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태우 논산시농업기술센터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친근감은 물론,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업 재배 기술이 널리 파급되어 보다 많은 분야로 교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논산 =김태선기자

동 정

최종보고회

황명선 논산시장= 20일오후 2시 상황실에서 개최되는 황산벌 전적지 문화재지정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

제5차 본회의

최홍묵 계룡시장 = 20일 오전 10시 계룡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11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참석.

7월중 희망의 대화

노박래 서천군수= 20일 오후 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6년도 7월중 희망의 대화에 참석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이용우 부여군수= 20일 오전10시 부여문화원에서 열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참석.

계룡시 2002번 버스 요금 인하

구간요금제로 시 경계 내 구간 200원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신도안아파트~대전역 구간을 운행하는 2002번 좌석버스 요금이 20일부터 200원 인하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관내를 이동하는 단거리 승객의 경우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사항이 이어짐에 따라 이를 수렴해 버스 운행업체와의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요금이 조정됐다.

계룡시와 대전시 각 시내구간에서 승 · 하차하는 일반인 승객(청소년, 어린이 제외)에 한해 요금이 교통카드 기존 1,7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된다.

다만 구간요금제 적용을 통해 시 경계(기준 : 과선교)를 넘어 이동하는 승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한 요금(1,700원)이 적용된다.

계룡시와 대전을 이어주는 2002번은 약 12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로 이번 요금인하를 통해 이용자들은 교통비 부담을 덜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계룡시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지난 2013년 버스 개통 후 계룡시민의 대중교통 편익이 크게 향상되고 이용객도 늘어나 도시발전을 앞당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교통팀(042-840-253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계룡=주선웅기자

동 정

간부공무원 민원상담의 날 실시

오시덕 공주시장= 20일 오후 2시 종합민원실에서 간부공무원 민원상담의 날을 실시.

세계 머드 피부미용 경진대회

김동일 보령시장 = 20일 오후 7시 40분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에서 열리는 세계 머드 피부미용 경진대회 참석

농업경영인 가족 화합대회

이완섭 서산시장= 20일 서산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서산시 농업경영인 가족 화합대회에 참석.

내 도로개설 사업장 현장행정

박동철 금산군수= 20일 오후 2시 계진리 진입도로 등 관내 도로개설 사업장에 대한 현장행정 실시.

미국선녀벌레 방제활동에 '온힘'

서산시, 보호수 · 가로수 · 주요등산로에 약제 살포 등 24시간 방역태세 돌입

서산시가 미국선녀벌레 박멸에 온힘을 다하고 있다.

최근 북미유럽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선녀벌레가 팔봉면, 부석면, 인지면을 중심으로 서산시 전역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특히 미국선녀벌레는 산림지역뿐만 아니라 과수, 농경지에도 발생해 피해를 입히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주로 야산에서 발생 · 서식하나 과수류, 공원녹지의 관상수 등 수목에도 발생해 그을음병을 유발하고 외관상 혐오감을 줄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이동해 피해를 주고 있다.

서산시는 전문방제단을 구성하여 방제차량을 이용한 약제를 ▲보호수 ▲가로수 ▲공원 및 녹지 ▲주요등산로에 살포하는 한편 대책본부를 꾸려 24시간 방역태세에 들어갔다.

또한 시 방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농경지 방제를 위해 사업비 1억원을 긴급 편성, 방제약제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앞으로 산림 연접지, 등산로, 공원, 녹지 등을 중점적으로 예찰하고 농경지에 대한 미국선녀벌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농지주변 산림에 대한우선 방제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농작물 등에 대한 방제방법을 홍보해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미국선녀벌레 확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농경지에는 개인 농가별로 방제에 철저를 기해 달라." 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여름 휴가철 '레스도랑 데이' 운영

공주시, 도랑 살리기 운동 추진… 마을 17개소 정화활동 전개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 살리기 운동 추진을 완료한 17개 마을에 대해 레스도랑(Let's 도랑) 데이를 운영한다.

시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오는 31일까지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마을이 합동으로 마을도랑 정화의 날(레스도랑 데이)을 정해 마을별 도랑 정화활동을 중점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운동은 마을의 자발적인 참여로 수질과 수생태계를복원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을주민, 공주시,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3개 마을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정화활동을 통해 마을주민은 물론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옛 도랑 향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친환경 마을 이미지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주시 환경자원과 수질관리팀 고영석 담당은 "도랑살리기 운동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가 도랑을 복원하고 가꾸어 쾌적하고 깨끗한 도랑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시에서도 금강으로 유입되는 마을의 도랑 복원을 위해 유관기관, 마을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도랑살리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캠핑 · 레포츠 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

보령시 선정… 휴가철 관광객 증가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매년 전국의 관광지, 체험휴양마을, 맛집 등 농촌관광자원을 대상으로 관광 트렌드에 맞는 관광코스를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보령시는 천북 쌈지돈마을을 비롯한 오천 충청수영성 등 주요 관광지가 '캠핑 · 레포츠 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농촌 관광코스에는 천북면 쌈지돈 마을과 염성해변에 있는 공룡 자국 화석, 오천면에 있는 충청수영해안경관전망대, 충청수영성, 오천항 등 다양한 지역 명소가 포함됐으며, 충남에서는 유일하다.

천북면에 위치한 쌈지돈마을(http://ssamjime.invil.org/index.html)은 농촌체험휴양마을로서 도시에서 흔히 접하지 못하는 토끼, 병아리, 거위, 돼지 등 다양한 동물을 만날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사전 예약시 손두부 만들기, 공예체험 등 자연과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쌈지돈 마을에서 13km 정도 떨어진 학성리 해변 맨삽지 섬 북쪽에서는 썰물 때 가면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발자국 화석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공룡발자국 화석은 대부분 경상남북도 및 전라남도에 집중돼 있고 이 외 전라북도 군산과 충청북도 영동 등 중부 일부지역에서 보고되어 있으나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었다.

충청수영성은 조선초기에 설치돼 고종 33년인 1896년 폐영될 때까지 군선이 142척, 수군이 8400여명에 이르는 등 서해안의 안보를 책임졌다. 이는 주변의 산자락이 포근히 감싸 파도는 물론 바람까지 막아주는 아늑한 항구였기 때문이다.

충청수영성 해양경관 전망대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과 접해 있고, 천수만 낙조의 황홀한 풍광을 만끽할 수 있으며, 지난해 137년 만에 복원된 누각 '영보정'은 다산 정약용과 채팽윤이 아름다움을 극찬할 정도로 주변 경관이 뛰어나다.

충청수영성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 키조개로 유명한 작은 항구인 오천항에서는 맛있는 해산물을 즐기며 여행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촌관광코스 10선에 선정됨에 따라 체험형 관광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많이 오셔서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선정된 코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 관광 포털인 '우리나라 좋은 마을, 웰촌'(http://www.welchon.com/index.do)을 참고하면 된다.

보령=김태선기자

공주시 시립도서관 7월 전시 이서展

공주시(시장 오시덕) 시립도서관 웅진관에서 7월 전시 이서전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 열렸다.

이번 전시 '이서展'은 이종옥 작가와 서승화 작가의 이름을 딴 전시이기도하지만 서로 다른 장르의 그림을 선보인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화를 전공한 이종옥 작가와 서양화를 전공한 서승화 작가가 참여해 동서양의 각기 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이종옥 작가의 한국화에서는 고즈넉함을 서승화 작가의 서양화에서는 따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전시는 31일까지 웅진관 1층 로비 나루갤러리에서 전시되며 도서관 이용시간(오전 8시 ~ 오후 10시)에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오명규 시립도서관장은 "공주시립도서관이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으로서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라키비움(Larchiveum)'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 =정상범기자

보령시 호스릴 소화전 설치

화재안전기반 구축 골든타임 확보

보령시가 원거리 농촌마을의 소방사각지역 해소 및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8000여만 원을 투입, 10개 지역에 대한 화재안전기반 시설인 호스릴 소화전을 설치했다.

시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고 화재 시, 주택뿐만 아니라 산불로 번질 수 있어 초기 화재진압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 이번 농어촌마을 화재안전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소화전을 설치한 것이다.

이번에 설치한 소화전은 전기식 가압펌프가 내장돼 있고, 호스길이가 100m인 제품으로 기존제품의 단점을 보완해 화재발생 즉시 사용이 가능하여 누구나 신속한 사용이 가능하다.

또 시에서는 이번 소화전 설치와 함께 화재로부터 마을주민 스스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을리더를 중심으로 소화전 사용법도 교육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화전 설치로 농어촌지역의 소방 사각지역 해소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초등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보령 =김태선기자

우/리/동/네

금산군청 갤러리 금속공예 전시회 눈길

우리 삶속 '가치'에 대해 묻는다

금산군청갤러리에서 '금산여성작가회' 작품전시회가 열려 관심이다.

'삶과 사랑_ 가치'라는 주제로 우리 삶속에서 잊고 사는 '가치'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금산여성작가회는 금산에 거주하는 여성작가들로 금속공예, 닥종이, 도자기, 서양화, 동양화, 일러스트, 화훼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작가 개개인의 사상과 현실인식이 담긴 작품들이 주류를 이룬다.

20대 금속공예작가인 최현정은 젊은 감각으로 미니멀한 주얼리를 선보였으며, '오해와 편견'이라는 페인팅 작품에서는 잘못된 인식의 오류를 말해준다.

김진영 회장의 '아, 어찌 기뻐하지 않으리오'는 온전한 가치를 깨달았을 때의 기쁨을 표현하였고 '영원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의 가치에 대한 갈구를 보여준다.

김민자의 회화작품 '신은 나무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김수인의 도자기작품 '물에 비친 달', 백선희의 닥종이에페인팅작품 '삶과 사랑', 정주희의 일러스트작품 '사랑한다 울아들', 플로리스트작가인 원종인의 '구상', 교류작가 김덕민의 수채화작품 '화산바위'와 '호랑이바위' 등 신선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전시는 금산여성작가회와 금산자치종합대학 (귀금속가공과정, 화훼기능사과정), 금산청소년복지센터(작품명:조명, 칠보거울 등), 금산여중학생들(작품명:자화상)과 함께 작품으로 공감했다. 금산여중 학생들은 금속으로 자화상을 만들며 자기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작가들의 작품은 작고 감각적인 디자인 엽서로 제작되어 전시장 한쪽에 비치,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진영 회장은 "금산여성작가회 회원들은 여성작가로서의 삶을 함께하는 것의 가치에 대하여 강조하며 서로 격려와 응원속에서 좋은 작품을 지속할 것"이라며 "후진양성을 위해 청소년 예술강의는 물론 금산종합자치대학의 귀금속가공기능사과정, 화훼기능사과정 운영으로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7월29일까지다.

금산=손광우 기자

(재)현숙장학회 해산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품으로

지난 1993년부터 운영돼 온 재단법인 현숙장학회가 지난해 8월 법인이 해산되고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이 마무리되면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재)현숙장학회는 금산군 복수면 곡남리에서 평양식당을 운영하던 고 현영숙씨가 음식장사를 해 모은 1억원을 후세교육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내놓으면서 조성된 장학회로서 금산군의 인재육성과 재능발굴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쳐왔다.

1994년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약 200명에게 140백만원여를 지급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여왔다.

최근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 현숙장학회는 해산과 더불어 청산의 절차를 밟아 왔으며 현숙장학회의 잔여재산은 정관규정에 따라 금산군에 귀속된 후 유사목적의 공익법인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에 기부된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에서는 기탁받은 잔여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특별(현숙)장학금을 향후 10년 동안 지급할 계획이다.

금산=손광우 기자

2016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 도서

서산시 '시인 동주' 선정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2016년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 도서로 안소영 작가의 '시인 동주'를 올해의 책으로 선정 했다.

이번 선정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시민들의 추천을 통해 정해진 후보도서 3권 중 문인, 독서단체 회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됐다.

이 책은 윤동주 시인의 서거 70주년을 맞아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에도 한 편의 서정시와 같은 삶을 살았던 윤동주와 송몽규의 삶을 담아낸 책으로 그 속에 실린 주옥같은 시를 통해 그 시대의 아픔뿐만 아니라 시인 윤동주의 내면까지 이해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올해의 선정도서 '시인 동주'를 주제로 독서릴레이와 독후감 공모, 작가강연회와 독서토론회 등의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윤관희 서산시 시립도서관은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의 확산으로 책 읽는 문화도시 서산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보령시 집수리 로드 자원봉사 진행

보령시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현대건설이 함께한 가운데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제6회 재난위기가정 집수리 로드 자원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뜻하지 않은 재난재해 피해로 인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보령지역 시민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재난위기가정 집수리 로드 자원봉사는 국민안전처가 후원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이 협찬하는 재난위기가정 지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보령지역 주민 47가구에 10만원 상당의 주방용품 세트를 선물하고 도배, 장판 등 집수리활동과 이불빨래 봉사를 펼쳤다.

이외에도 현대건설 보령 – 태안 도로공사 현장 직원들도 자원봉사자 100여명과 함께 봉사에 참여해 희망의 메시지 전달에 힘을 보탰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좋은 사람 (MBC오전 7시50분)

정원(우희진)의 레시피가 표절로 인해 실격 처리를 당하고, 승희(오미희)는 만구(남경읍)가 악플러로 문호(독고영재)에 사무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한편, 정원은 자신이 레시피를 결백을 입증할 증거를 찾는데...

▲사랑이 오네요 (SBS 오전8시30분)

해인에게 상호의 과거 이름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선영. 선영은 상호가 옛 이름에 콤플렉스가 있다고 말하며 업무와 상관없는 것에 관심을 갖는 해인의 태도에 주의 준다. 한편, 은희는 해인이 자신의 아빠 이름이 '금방석이' 맞냐고 묻자 크게 당황하는데...

▲내마음의 꽃비 (KBS2 오전 9시)

수창(정희태) 앞에서 정체를 드러낸 연희(임채원)는 그간 참았던 감정을 쏟아낸다. 그동안 베풀었던 호의가 함정이었음을 확신한 일란(임지은)과 수창은 급히 연희에게 담보 잡힌 제2공장을 되찾으려 하고, 모든 준비를 끝낸 연희는 이들을 향해 숨겨왔던 발톱을 서서히 드러내는데...

케이블 명화

▲ 설국열차 (OCN 오후 1시50분)

기상 이변으로 인류에게 닥친 새로운 빙하기, 생존 인류 전원을 태운 채 설원을 뚫고 질주하는 새로운 노아의 방주 안에서 펼쳐지는 숨가쁜 반란의 드라마인 <설국열차>

새로운 빙하기, 그리고 설국 17년

인류 마지막 생존지역 <설국열차>

기상 이변으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지구. 살아남은 사람들을 태운 기차 한 대가 끝없이 궤도를 달리고 있다.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바글대는 빈민굴 같은 맨 뒤쪽의 꼬리칸,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이 술과 마약까지 즐기며 호화로운 객실을 뒹굴고 있는 앞쪽칸. 열차 안의 세상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기차가 달리기 시작한 17년 째, 꼬리칸의 젊은 지도자 커티스는 긴 세월 준비해 온 폭동을 일으킨다.

기차의 심장인 엔진을 장악, 꼬리칸을 해방시키고 마침내 기차 전체를 해방 시키기 위해 절대권력자 윌포드가 도사리고 있는 맨 앞쪽 엔진칸을 향해 질주하는 커티스와 꼬리칸 사람들. 그들 앞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 올모스트 페이머스 (채널CGV 오후 10시00분)

1973년, 샌 디에이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15세의 윌리암 밀러(패트릭 후지트 분)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괴짜이다. 록큰롤에 심취한 그에게는 레드 제플린, 페이시스, 더 후, 험블 파이 등의 명 그룹들의 음악만이 유일한 벗일 뿐이다. 우연한 기회에 록 매거진의 편집장인 록 비평의 선구자 레스터 뱅스(필립 세이모어 호프먼 분)와 친해진 윌리암은 최고 인기의 락그룹 블랙 사바스와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사바스의 공연무대 뒷편에서 유명세를 타기 일보직전(almost famous)의 신진 그룹 '스틸워터(Stillwater)'를 만나 색다른 감동을 느낀 그는 허풍을 쳐서 스틸워터에 대한 롤링 스톤지의 특집기사 작성권을 따내고 어머니(프랜시스 맥도먼드 분)의 암묵적 허락에 힘입어 밴드의 투어에 따라나선다.

투어 중에 그는 밴드의 리드 기타리스트로 인기 급부상중인 러셀 하몬드(빌리 크루덥 분)와 그의 재능을 질투하는 리드 싱어 제프 베베(제이슨 리 분)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한편, 스틸워터의 열광적인 팬인 페니 레인(케이트 허드슨 분)과 사랑에 빠진다.

케이블 & 위성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케이블 TV방송 협회 060-398-3355

영화 · 오락

◈ OCN
7:20 조선명탐정2:사라진 놉의 딸
9:30 NCIS 시즌13
11:30 블라인드 스팟
13:50 설국열차
16:20 오블리비언
18:50 솔트
20:50 토르:천둥의 신
23:00 38 사기동대

◈ 채널 CGV
7:10 웰컴 투 사우스
9:10 몬스터 대학교
11:00 소셜 네트워크
13:20 스파클
15:40 미쓰와이프
17:50 말레피센트
19:50 나니아 연대기3:새벽 출정호의 항해
22:00 올모스트 페이머스

◈ Mnet
6:30 언프리티 랩스타2
7:40 Mnet SHOW ME THE MONEY 5
9:40 소년24
11:20 언프리티 랩스타
12:20 펜타곤 메이커
13:20 MPD Music Talk (SNS/메신저)
14:20 너의 목소리가 보여3
15:50 밸리록 스페셜 닥PD의 성덕투어
16:50 Daily Music Talk (SMS)
17:50 소년24
19:30 Live on M(SMS)
20:30 Mnet SHOW ME THE MONEY 5
23:00 언프리티 랩스타2

스포츠 · 레져

◈ MBC스포츠플러스
11:00 2016 메이저리그
14:00 2016 메이저리그
17:00 2016 메이저리그 선수별 하이라이트
17:30 코리안메이저리거 라이브
18:00 베이스볼 NOW
18:30 2016 타이타뱅크 KBO 리그
22:00 베이스볼 투나잇
23:00 메이저리그 투나잇

◈ SBS 스포츠
10:00 2012 런던올림픽 메달리스트
11:00 2014 인천광역시장배 당구대회
12:30 극한의 도전 익스트림 스포츠
13:00 정글의 법칙 in 파나마
14:20 정글의 법칙 in 통가
17:00 2016 베이스볼S
18:15 2016 KBO 리그
21:50 2016 베이스볼S

◈ 온스타일
8:15 제시카&크리스탈
9:55 다이어트 마스터
10:55 내 방의 품격
12:05 응답하라 1997
12:55 올리브쇼 2016
13:50 이효리의 소셜클럽 GOLDEN12
14:35 매력티비
15:05 오늘 뭐 먹지?
16:15 tvN SNL 코리아시즌7
17:35 또오해영
20:10 더 바디쇼
21:00 겟잇뷰티 2015
22:00 매력티비
22:30 효연의 백만 라이크
22:45 겟잇뷰티 2015

뉴스 · 다큐

◈ YTN
8:00 이슈 오늘
10:00 뉴스타워
12:00 뉴스n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 인
16:00 뉴스Q
18:00 뉴스 통
19:30 신율의 시사탕탕
20:15 YTN 24
21:00 뉴스만만

◈ 한국경제TV
7:00 굿모닝 투자의 아침
8:30 출발! 증시 830
10:00 증시라인 10
12:00 재테크, 알아야 번다
13:00 증시라인 13
15:40 부자국민 만들기 연금술사
16:30 한국경제 이슈 N
17:00 성공예감 부동산 재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현장
19:00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열려라 성공취업
21:00 장외주식 4989

◈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8:00 와일드 순간포착(1)
10:00 건강한 아침, 메디컬365
11:00 아시아 헌터
12:00 <천혜의 자연, 오스트레일리아>1부. 붉은캥거루의 사막
13:00 <천혜의 자연, 오스트레일리아>2부. 쥐라기 정글
14:00 <천혜의 자연, 오스트레일리아>3부. 웜뱃의 왕국
15:00 <천혜의 자연, 오스트레일리아>4부. 코알라의 숲
16:00 TV 동물농장
19:00 프리미엄 와일드 개코원숭이의 여왕

음악 · 애니

◈ MBC 뮤직
7:00 Good Morning MBC MUSIC
8:00 여자친구의 어느 멋진 날
9:00 Weekly M CAST
10:30 뮤엣가요제
12:10 쇼 챔피언 비하인드
13:10 주간 아이돌
14:10 무한도전
15:40 복면가왕
17:30 마이 리틀 텔레비전
19:00 Show Champion

◈ 애니맥스
6:00 고스트 닌자고
7:00 치링치링시크릿 쥬쥬8
8:00 헬로 카봇 프렌즈
9:00 터닝메카드 W
10:00 안녕! 괴발개발
11:00 도티&잠뜰TV : 외계인 학교
12:0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13:00 로보텍스
14:00 안녕! 괴발개발
15:00 터닝메카드 W
16:00 헬로카봇프렌즈
17:00 포켓몬스터 XY&Z

◈ JEI 재능방송
5:00 Rolly Rolly, Show me the Story
6:00 치링치링 시크릿 쥬쥬8기
7:00 애슬론 또봇
8:00 터닝메카드 W
9:00 토리코
11:00 으랏차차 짠돌이네
13:00 넥소나이츠
14:00 썬더일레븐 GO 갤럭시
16:00 헬로 카봇3
17:00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18:00 놓지마정신줄
20:00 플루토 비밀결사대
21:00 막이래요 시즌5

TV 프로그램

※문의 ▶ KBS 470-7320▶MBC 220-2348~9▶TJB 281-1101▶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수화방송)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중계방송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정세균 국회의장 12:00 KBS 뉴스 12 1:00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1:05 KBS네트워크특선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사람들 1:55 감성애니 하루 2:00 한국인의 밥상 2:50 시사기획 창 3: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3:55 튼튼생활체조 4:00 4시 뉴스집중 5:00 KBS뉴스 5 5:30 동물의세계 6:00 6시 내고향 6:55 시청 자칼럼 우리사는세상 7:00 KBS뉴스 7:35 사람과 사람들 8:25 별난 가족 9:00 KBS 뉴스 9 10:00 생로병사의 비밀 10:55 감성애니 하루 11:00 KBS 뉴스라인 11:40 제10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어워즈 시상식	6:00 이욱정 PD의 자연 담은 한끼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아침뉴스타임 9:00 TV소설 내마음의 꽃비 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수상한 휴가 12:00 함부로 애틋하게 2:00 KBS뉴스타임 2:10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다시보는 대한민국 올림픽 명승부 3:30 TV유치원 4:00 여유만만 5:00 비타민 6:00 2TV 저녁 생생정보 7:50 여자의 비밀 8:30 글로벌 24 8:55 신입 리얼 도전기 루키 10:00 함부로 애틋하게 11:10 추적 60분	6:00 MBC 뉴스투데이 7:50 좋은사람 8:30 생방송 오늘아침 9:30 MBC생활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1:00 중계방송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12:00 MBC 정오뉴스 12:20 TV속의 TV 1:20 운빨 로맨스 2:00 텔레몬스터 2:25 드림주니어 스페셜 2:55 텔레몬스터 3:00 MBC뉴스 3: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3:55 모두모두쇼 4:25 워킹맘 육아대디 5:00 MBC 이브닝 뉴스 6:10 생방송 오늘 저녁 7:15 다시 시작해 7:55 MBC뉴스데스크 8:55 워킹맘 육아대디 9:30 리얼스토리 눈 10:00 W 11:10 라디오 스타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6:00 모닝와이드 8:30 사랑이 오네요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25 SBS 생활경제 11: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정세균 국회의장 12:00 SBS 뉴스 12:50 원티드 2:00 열린 TV시청자 세상 3:00 3시, 뉴스브리핑 4:30 고향이 보인다 5:00 고롤라즈 5:30 SBS뉴스 퍼레이드 6:05 생방송투데이 7:20 당신은 선물 8:00 SBS 8뉴스 8:55 영재발굴단 10:00 원티드 11:00 보컬전쟁 신의 목소리	6:00 충청남도영상소식 6:25 대한니우스 6:30 열린미디어 시청자세상 7:00 은혜로운말씀 7:30 문학의 향기 8:00 CMB 뉴스와이드 8:30 메디컬 인 9:00 특별한 대덕의 이야기 10:00 로우바리스타 10:30 톡톡 남도 쿡방 11:00 반려동물 프로젝트 동행 12:00 굿뉴스 12:25 대한니우스 12:30 해피쿡 맛있는 대화 1:00 CMB 여름특집 한국의 대이직도편 1:30 옛길, 시간을 걷다 2:00 열전등네방네-진달래아파트편 3:00 굿뉴스 3:30 문학의 향기 4:00 반려동물 프로젝트 동행 5:00 생생민원통 5:30 다큐희망 5:50 뉴스와이드 6:20 CMB 스포츠 2016프로야구 한화 vs KT 10:00 메디컬 인 10:50 해피쿡 맛있는 대화 11:00 한국의 섬 11:30 다시보는 문화영화	6:10 세계의 눈 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7:30 주사위 요정 큐비쥬 7:45 뽀롱뽀롱 뽀로로 8:00 딩동댕 유치원 8:30 시계마을 티키톡! 8:45 방귀대장 뿡뿡이 9:00 출동! 슈퍼윙스 9:40 라이브토크쇼-부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세계테마기행 11:40 한국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2:10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 12:45 EBS 초대석 13:40 사이틴 시즌3-왔다! 사춘기 13:50 이얍! 스페이스 정글 14:00 잭과 핑 14:30 미 앤 마이 로봇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16:30 방귀대장 뿡뿡이 16:45 딩동댕 유치원 16:50 한글이 아호2 17:15 시계마을 티키톡 17:30 꼬마버스 타요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톡! 톡! 보니 하니 1 18:05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18:20 톡! 톡! 보니 하니 2 18:25 아옹멍멍 귀여워 18:40 톡! 톡! 보니 하니 3 18:45 역사가 술술 18:55 톡! 톡! 보니 하니 4 19:00 레전드히어로-삼국지 19:30 EBS 뉴스 19:50 글로벌 아빠찾아 삼만리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 테마 기행 21:30 한국기행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극한직업

아산도서관 '토요일 책과 함께하는 희망 찾기' 개강

'2016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잠자는 책의 희망 찾기" 프로그램

아산도서관(관장 박재명)은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충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16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잠자는 책의 희망 찾기" 프로그램을 16일, 개강했다.

'꿈다락토요문화학교'는 학교 밖 전문 문화예술 기관 · 단체에서 아동 · 청소년 및 가족의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 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문화를 조성하고자 매년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이다.

'잠자는 책의 희망 찾기' 프로그램은 7월 16일부터 8월 27일 까지 매주 토요일 초등 1~3학년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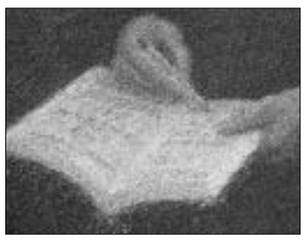
주 활동 내용은 버려지는 책을 활용한 다양한 예술작품 만들기이다. 학생들이 책의 탄생부터 버려지기까지의 전 과정을 통해 책의 소중함을 알고, 버려진 책이 새로운 예술작품으로 탄생하는 것을 보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그림작가 '조혜란' 초청강연회, 파주출판단지견학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문화체험도 함께 마련하여 아이들의 예술적 감수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7월 29일에 예정된 파주출판단지 문화체험은 '피노키오 뮤지엄' 및 '사계절 출판사' 견학으로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 관련 내용은 아산도서관 문헌정보부(☎541-102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6th 전환된 이미지> 展



롯데갤러리에서 다음달 23일 ~ 9월7일(17日間)까지 롯데갤러리대전점 9층에서 2016 <전환된 이미지>전을 개최한다.

<전환된 이미지>전은 2001년을 시작으로 올해 여섯 번째를 맞게 됐다. 이미지의 전환이라는 주제 아래 사진 작품에 국한했던 첫 번째 전시와는 달리 2003년에 진행된 2회전부터는 더욱 폭넓은 해석으로 사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대상들로 확대했다.

이번 전시에 참여작가는 총11명으로 사진작가 3명(김영길, 오세철, 최원진)과 사진을 소재로 작업하는 (윤지선, 이들님, 이인희), 사진을 모티브로 작업하는 작가(이수연), 그리고 사진의 속성 중 하나인 입자를 이용해 작업하는 작가(윤종석, 홍상식), 재현과 기록 등에 작업의 비중을 둔(구경숙, 이승희) 작가로 구성하고 있다.

의욕적으로 시작한 국내 대부분의 단체전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이 비일비재한 우리 화단의 실정에서, 전시 횟수는 많지 않지만 그 특성을 잃지 않고 십여년을 이어온 <전환된 이미지>전은 호흡이 긴 주목할 만한 전시라 할 수 있다.

송병배기자

'터널' 하정우-배두나-오달수 캐릭터 포스터 공개

리얼 재난 드라마…영화 대한 기대감 한층 고조

믿고 보는 배우 하정우, 배두나, 오달수와 김성훈 감독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터널>이 세 주인공의 캐릭터 포스터를 전격 공개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재난 소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터널>이 터널 안에 갇힌 한 남자와 터널 밖 그의 구조를 위해 애쓰는 세 인물의 진심이 담긴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해 눈길을 끈다.

<터널>은 집으로 가는 길, 갑자기 무너진 터널 안에 고립된 한 남자와 그의 구조를 둘러싸고 변해가는 터널 밖의 이야기를 그린 리얼 재난 드라마다.

이번에 공개된 <터널> 캐릭터 포스터 3종은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세 인물의 절절한 감정과 카피가 어우러져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킨다.

무너진 터널 안에서 하염없이 구조만을 기다리는 정수(하정우 분)는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 듯한 표정으로 초조함을 숨기지 못한다.

살아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지만 시간이 지체될수록 희망은 의심으로 변해가고 "저 구할 수 있는 거죠?"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한정된 공간 속, 위태로워 보이는 그의 모습은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궁금증을 배가시킨다.

정수의 구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는 세현(배두나 분)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도 의연하게 대처하지만 점점 포기를 강요하는 세상의 태도에 지쳐간다.

"만약 제 남편 살아있으면, 미안하지 않으시겠어요?"라며 묻는 그녀의 얼굴에는 남겨진 가족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누구보다 정수의 구조에 사력을 다하는 구조대장 대경(오달수 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현장에 등을 돌리는 현실에 "지금 저 안에 있는 사람, 아직 살아있다구요!"라고 외치며 투철한 사명감을 보여준다.

모두가 지쳐갈 때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정수의 구출만을 위해 힘쓰는 그의 모습에 관객들 역시 몰입하게 될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의 압도적인 연기력을 만나볼 수 있는 영화 <터널>은 오는 8월 10일 개봉 예정이다.

daejeontoday.com

청양초등학교, 무용부 쾌거! 지난 7월 16일 천안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린 제54회 충청남도 교육감기 전국 학생무용경연대회에서 한국무용 단체 1위, 현대무용 단체 1위, 발레 단체 2위, 현대무용 개인 2위의 영예를 안았고, 초등부 종합 1위로 그 영광을 드높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청양초등학교가 올해로 충남교육감기 학생무용대회에서 3년 연속으로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룬 점이다.

EN.F Total Interior Design 엔.에프 대표 손혁건 Mobile 010-8422-6946

KEB하나은행, 부여군에 '사랑의 행복상자' 기탁 KEB하나은행에서는 지난 19일 어려운 저소득층 이웃에게 희망을 심어 주고자 생필품으로 가득한 소중한 사랑의 '행복상자' (500만원 상당)을 부여군에 전달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대전)지구, 2016-2017 원로라이온 초청 간담회 국제라이온스협회356-B(대전)지구(총재 송경자)는 지난7월 19일 11시에 지구회관 4층에서 2016-2017 원로라이온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구발전을위한 고견을청취하는 뜻깊은 시간을가졌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계룡시 학생 · 주민 중심 교육 의견수렴회 18일 금암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도의원, 시의원, 금암동장, 신도안면장, 계룡지역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 등 32명이 참석한가운데 계룡시 학생 · 주민 중심 맞춤형 교육 실현을위한의견수렴회를 가졌다.

KT&G 1004사랑 愛 봉사단, 법2동 사랑의 집수리 봉사 대덕구 법2동(동장권승학)과 KT&G '1004 사랑愛집수리 봉사단(단장 서정식)' 은 지난 16일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법2동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사랑의 집수리 봉사를 실시했다.

㈜쇼핑플러스, 위문품(생리대) 대전시에기탁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19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권선택 시장과 안기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쇼핑플러스(대표 신현홍)로부터 저소득층 청소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3600만원 상당의 생리대를 기탁받았다.

청양군 새마을문고, 새마을가족 단합대회 지난18일 비봉면 관산리 부운농장에서 새마을가족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석화 청양군수, 김순복 비봉면장, 김보연 청양군새마을지회장, 임천식 새마을 문고회장 등을 비롯한 각 읍면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등이함께해 새마을 발전과 화합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2007년 시작해 교육누적인원 2700여명…예비군지휘관 역량 배양 앞장

"전국 예비군지휘관 300명 건양대 모이다"

건양대학교(총장 김희수)는 19일부터 21일까지 대전 메디컬캠퍼스에서 전국에서 모인 예비군지휘관 300명을 대상으로 창조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창조역량 강화교육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누적인원 2,700여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예비군지휘관들의 지휘역량을 배양하는데 큰 기여해 오고 있다.

3일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계룡군산학협력센터가 주최하고 육군본부와 건양대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이 협력해 실시된다.

특히 아시아 최대 안과전문병원인 김안과병원을 세우고 건양대, 건양대병원을 설립해 현재도 왕성히 활동 중인 현역 최고령 총장인 김희수 건양대 총장의 특강 '도전하는 인생에 성공이 있다'를 시작으로 SG엔터테이먼트 장석근 감독의 '행복한 마음을 여는 음악', 창조적 예비전력발전 모색, 국방 예비전력 비전, 100세 시대 건강한 삶, 성공적인 대인관계 유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특강과 함께 기간 중 안보공감 세미나도 병행하여 개최된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김희수 건양대 총장이 '첫 특강을 진행했다.

김 총장은 "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극기와 철저한 자기관리를 해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며 "지휘관으로 존경받기 위해서는 솔선수범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양대는 전국 대학 중 유일하게 예비전력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비전력석사과정과 예비전력전문연구소 등을 운영하는 등 예비전력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건양대 이세영 교수(계룡군산학협력센터장)는 "예비전력은 국가안보의 핵심전력으로서 창조적인 교육을 통해 예비전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예비군지휘관들의 지휘역량도 지속적으로 배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물놀이를 했어요!"

공주정명학교(교장 김은자)는 지난 19일 재학중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주 곰나루수영장에서 물놀이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사전에 학생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물놀이 활동 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와 수영장을 이용할 때 주의사항을 학습하고 지역사회 시설인 곰나루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였다.

학생들은 안전지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물속에 들어가 친구들과 물놀이 보트와 튜브를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다.

도경민 학생은"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니까 너무 시원하고 재미있었다. 선생님들께서 물놀이를 도와주셔서 겁나지 않고 좋았다. 내일부터 학교생활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여름철의 특성을 고려한 물놀이 체험학습은 물속에서의 적응력 및 수영과 관련된 기초 기능을 익히고 나아가 장애극복의지와 사회적응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공주=정상범기자

이완섭 서산시장, 제주도 방문

연이은 관광 벤치마킹에 '새 바람'

이완섭 서산시장이 연이은 관광 벤치마킹으로 새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 시는 관광산업이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보고. 해미읍성을 비롯해 개심사, 마애여래삼존상 등 대표 관광지의 상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서산 대산항과 중국 룽청시 룽얜항간 국제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중국관광객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광 인프라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시장은 평소 타시군의 창조관광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더 나은 서산시 관광정책의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아울러 관련부서에 주문하기 앞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 타 시군의 관광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에 나선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 3일에는 전주시 한옥마을을, 지난 10일에는 부여군 서동공원에서 개최된 서동연꽃축제에 직접 다녀 왔다. 창의적인 관광아이템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 시장이 이번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관련부서 직원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했다.

이 시장은 제주도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항공우주박물관 ▲세계자동차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을 방문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자연경관에 상상과 역발상으로 폐자원과 지역특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창출한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중부도시가스 '사랑의 헌혈' 나눔 실천

중부도시가스(대표이사 김병표)는 지난 18일, 본사 사옥에서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 올해로 7회째를 맞고 있는 '사랑의 헌혈'은 대한적십자사/대전 · 세종 · 충남 혈액원과 연계해 진행됐다.

이날 '사랑의 헌혈'은 휴가와 방학 등으로 인하여 헌혈 참여자가 적은 하절기의 혈액수급에 기여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 했으며, 헌혈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헌혈증서는 소중한 생명을 위해 쓰이도록 기부하기로 했다.

한편, 중부도시가스는 시각장애인 교감프로그램, 하절기 청소년가스안전캠프, 장수사진 봉사활동, 사랑의 연탄배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중구새마을부녀회, 임시총회 개최

피크시간대 100W 절전 캠페인 실시

중구새마을부녀회(회장 신은자)는 19일 오전 10시~11시까지 지회 회의실에서 새마을부녀회 대의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단독 후보로 출마한 신은자회장은 만장일치 추대로 중구새마을부녀회 제 1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신은자 회장은 유천1동 동부녀회장을 6년 역임하고 중구지회 이사로 활동 하다가 이번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신은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임 신은자 중구새마을부녀회장은 11시~12시까지 충무로4거리에서 회원 50여명과 함께 절전 캠페일을 실시했다.

전력난 해소'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날 행사는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서도 전기소모 최소화 캠페인으로 쿨맵시, 물절약, 실내적정온도 유지하기 등 정전운동에 시민들이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송병배기자

한국영상대 '영상 제작 특강' 열어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산하 브루클린 대학 교수 초청

한국영상대학교(총장 유재원)는 19일 뉴욕시립대학교 산하 브루클린 대학교(Brooklyn college, 총장 미셸 앤더슨) 교수를 초청해 '영상 제작 특강' 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브루클린 대학 티비/라디오학과 교수이자 프로듀서인 스튜어트 맥클랜드(Stuart MacLelland)를 초청해 '비디오 프로덕션' 에 관한 주제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조적인 과정 ▲스마트폰 미디어 제작 ▲무대 싱글 및 복수촬영 ▲시각적인 연속성을 위한 촬영 ▲무대, 조명, 리허설 등이다.

특강에는 오는 8월 뉴욕한인방송국으로 해외 현장학습을 나가는 2명의 학생을 포함해 15명의 영상계열 학생들이 참여했다.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됐고, 참가 학생들은 주어진 주제로 3개의 작품을 만들어 지난 18일 시사회를 열기도 했다.

또한 지난 15일과 16일에는 대학을 방문한 미국 뉴욕시립대 학생들과 도자기만들기, 다도체험 등 문화를 교류하는 영상제작 캠프 투어를 진행하기도 했다.

정상범기자

청양군 장평전담의용소방대 '대장 부부' 탄생 화제

청양군(군수 이석화)에서 최초로 전담의용소방대장 부부가 탄생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장평면 장평리에 거주하는 신동만(59세), 박안순(56세)씨 부부로 남편 신씨는 장평전담의용소방대장을, 부인 박씨는 여성 대장을 맡아 지역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한 활동에 여념이 없다.

신동만 대장은 1985년부터 소방대원으로 활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32여 년 동안 소방대에 몸담고 있으며, 부인 박 대장은 2006년부터 소방대원 활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소방대장으로 먼저 취임한 것은 부인 박 씨로 지난 2012년 12월 취임해 대장직을 맡아 오던 중 남편 신씨가 지난 15일 취임함으로써 '대장 부부' 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대전대 LINC사업단, 인도네시아국립 자카르타 대학교 MOU 체결 대전대학교(총장 임용철)LINC사업단(단장 겸 산학부총장 이봉환)과 인도네시아 국립 자카르타 대학교(총장 Prof.Dr.Djaal)는 18일 오후 6시 대전 유성 아드리아호텔에서 연구 · 조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기 고

정치인의 책임과 의무

김무강
건양사이버대학교 부총장

북한 정권은 아무런 경고나 사전 통보없이 청와대를 비롯한 대한민국에 대해 불벼락을 내리겠다는 방송을 공식적으로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마다 그 엄포가 두렵다기 보다 매우 불쾌한 기분이 든다.

해방 이후 정치적 지도자들의 이념으로 동족이 남북으로 나누어 서로가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관계로 지도자들을 믿고 따르던 무고한 백성들만이 무수히 희생 되었다.

북한이 원자탄, 장거리 로켓까지 운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가 현재의 국가 지도자들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 종종 의문이 생긴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작태를 보면 본인들의 이해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기지만 전쟁이 터지면 국민들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제일 먼저 도망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3일 만에 서울을 적에게 빼앗기고 당시의 대통령 이승만은 한강 이남으로 도피 했음에도 한국 군대가 잘 싸우고 있으니 국민은 안심하라는 방송을 계속했고 그런 가운데 도강해야 했던 유일한 다리인 한강철교 마저 적군의 진격을 막는다는 이유로 폭파함으로 뒤늦게 피난길에 나선 국민들을 한강물에 수장했다.

수복 이후에는 상부의 명령으로 한강을 폭파한 공병감 최창식 대령을 피란민을 수장한 폭파범으로 몰아 명령에 충실했던 군인을 사형시켰다. 명령을 내린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명령에 따라 움직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인 것인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믿기 어려운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 놀음에 수 많은 국민들이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북한 정권이 불바다 운운하는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자주 불바다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천안함을 침몰시켰고 연평도를 포격하면서 원자폭탄을 개발하였다.

이 때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무었을 했는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햇빛정책이라는 속임수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물심양면의 지원을 계속 했고, 엄중한 대처를 하겠다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반격도 부족했다.

어느 가정할 것 없이 옥이야 금이야 하며 부모들이 길러서 국가에 바친 젊은이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빼앗아 갔다. 초등학교 책에 나오는 늑대와 소년 이야기도 생각난다. 출현하지도 않은 늑대가 나왔다는 소년의 거짓말만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늑대 잡겠다며 허둥대는 것을 보고 재미있어 다시 거짓말을 함으로 해서 다음에 정말로 늑대가 나왔을 때는 아무도 늑대를 쫓으러 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단순한 이야기이다.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우리나라 정부도 양치기소년 이야기 같은 행동을 해왔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동안 정부가 북한이 불장난을 하면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엄포는 많이 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타격을 주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해만 입었다.

불쌍한 국민들의 울음 속에 가여운 청년들의 초상만 치룬 셈임으로 이제 정말 북한이 더 큰 공격을 해와도 당파 싸움에 몰입하다 별다른 반격 능력 없이 적에게 어부지리만 줄 것 같은 생각조차 든다. 청와대를 향한 장사정포를 배치 했음에도 정말로 포탄이 떨어 지면 얼마나 뜨거울 것 인지를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지 않은 것 같다.

포탄의 위력을 실제로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황장엽을 비롯한 북한의 요인들이나 북한에 남북 되었다가 탈북한 영화인 최은희 부부들이 이북 체류 중에 겪었던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북을 조금만 더 봉쇄하면 자연적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렇게 적절한 조언을 해준 사람들을 연금 상태로 해두었고 거꾸로 피 같은 국민의 돈으로 북한정권에 경제적인 도움만 더 많이 해주어 그 돈으로 무기를 만들고 폭탄을 제조해서 이제 와서는 더 큰 소리를 치게 했다.

오늘날 이러한 사태가 오도록 한 지도자들은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전쟁이 터져 수 많은 국민이 죽게 되는 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격언처럼 일찍이 북한 정권을 접수할 수도 있었을 것을 지금은 더 많은 희생을 치루고서도 연착륙이 어려운 상태로 만든 것은 아닌지, 몇몇의 정치 지도자들만 살아야 하고 수 많은 국민들은 죽어도 된다는 것인가 그동안 암덩어리 같은 북한 정권을 키워 온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었다는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이적 행위같은 오늘의 상태를 만든 정치 지도자였던 자들을 찾아내어 전 국민 앞에 내세워 잘못을 표출하게 하고 더 나아가 처벌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의 영화만 누리고 아무런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그런데도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정치 지도자들을 믿고 매일 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 하면서 가정을 이끌고 나아가는 국민들이 너무 불쌍한 처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중대한 위기일 때 정치인은 죽더라도 국민은 살려야한다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없다면 국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닌지, 아무튼 적을 코앞에 두고도 그 동안 정부가 큰소리만 쳐온 것에 국민들은 중독되어 정부의 적절한 조치나 지시조차도 이제는 무감각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정치 지도자들에게 묻고 싶다.

그 답이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시행착오였다고 할 것인가. 지도자들을 믿고 따르는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시행착오를 해도 되는 것인가. 이제라도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결정이 국민들의 안녕에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재삼재사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으면서 자신의 안위와 영광보다 국민의 충복이라는 자세로, 국가의 위기 시에는 제일 먼저 죽어야 하고 그래도 잘못이 남는다면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절실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전쟁이 발발하면 지하로 숨어 들어갔다가 전쟁이 지나고 나면 죽지 않고 나타나 초록이 동색이라는 말처럼 다 같은 민족이니 따질 것이 없다는 자세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국권을 일본에 넘긴 이완용과 다름이 없는 매국노가 아닌가.

경제 발전을 해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온 국민이 땀흘려 이룩한 현실이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정치 지도자들은 뼈 속 깊이 새기면서 정치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면 아끼고 사랑스러워 하며 애지중지 키운 아들 딸 들은 물론 후손에게까지 불쌍한 일이 생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교단 에세이

바램

신경희
충남교육청 장학관

뜨거운 햇빛과 30도를 훌쩍 뛰어넘는 무더위가 연일 이어져 장마가 끝난 줄 알았다. 한데 주말에 다시 커피를 볶듯, 후드득 후드득 비가 내렸다. 장마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이젠 끝물이지 싶다. 장맛비에 젖는 모든 것들이 제 몸의 상처를 감추지 못하는 날. 내 머리 속은 덩달아 엉킨 실타래라서 한잠 자고 생각하자며 낮잠을 청해 보았지만 허사였다.

그냥 책이나 읽을까(?) 주변을 둘러보니 오랫동안 방치된 책들이 무표정하고 뜨악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짬나는 대로 읽겠다는 욕심 하나로 집안 곳곳에 책을 뿌려두는 건 또 다른 취미이자 습관이 됐다. 그러고 보니 집에서 책을 읽은 지가 한참이다.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침저녁으로 내달리며 급급하게 산다는 핑계를 잡아 주말에도 시간을 무심히 소홀하게 보냈다. 상체를 잦바듬하게 젖히고, 오랜만에 책을 펼치니 차오르는 어둠에 아무렇게나 몸을 적신 나를 무슨 희망 같은 게 물고기처럼 툭 치고 지나가는 것이었다.

비 그친 오후엔 뜨거운 공기 한 그릇이 추가됐다. 벌써 7월 중순을 넘어섰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날들이 고만고만하게 피식피식 꺼져가는 날들의 연속이다. 삶은 늘 그런 건지도 모른다. 고만고만한 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지 싶다.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가 말했듯이 삶이란 결국 크고 작은 일들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는 실존적 삶일 것이다.

요즘 부쩍 숨이 막힌다. 부질없는 욕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탓일 게다. 노사연의 노래 <바램>을 반복재생으로 오후 내내 들었다. 2년에 전에 발표되어 중장년층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며 유튜브 조회수 300만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모은 노래다. 중저음 보컬과 애잔한 첼로디가 세월의 무게와 외로움을 위로하는 노랫말을 타고 가슴을 울린다. 특히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등의 후렴구 가사가 한껏 축축해진 감성을 완벽 자극했다.

딱히 무슨 연유라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날 잠 못 이뤘다. 일하다 말고 짬짬이 좋아하는 시를 외워질 때까지 필사하기도 했다.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이라고 썼다. 마음가득 참 알 수 없는 욕망이 봉숭아 씨방 같이 통통하다. 터지기 전에 정리가 필요하다. 듬성듬성할지언정 내가 선 자리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남의 답이 아니라 나의 답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겠지. 아름답다는 말은 '그 사람답다, 나답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선조들도 '나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 했다. 자신의 가치를 잘 발휘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귀한 생각을 놓지 말고 살아야겠다.

누군가도 내 마음 속의 점들을 연결하면 별이 된다했다. 열심히 살다보면 인생에 어떤 점들이 부려질 것이고, 의미 없어 보이던 그 점들이 어느 순간 연결돼서 별이 되는 것. 자신의 길을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눈물 나는 상황에서도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면 햇살이 환히 비치고 있다. 엉엉 울고 싶을 때 그 하늘을 보고 실컷 울고, 웃고 싶을 때 그 하늘을 보고 실컷 웃으면 쏟아진 눈물이 변하여 미소가 되고, 다시 기쁨의 눈물로 바뀐다. 그래 그런 거야. 중얼중얼 이래저래 지친 영혼을 다독다독해 본다.

나는 여름 산이 참 좋다. 젊은 아버지 같은 능선이 구비치 듯 크고 건장한 육체로 누워, 산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몸짓들엔 꿈쩍도 하지 않는 산이 정말 부럽다. 그저 한두 번 눈을 떴다 감았다 할 뿐인 여름 산처럼 흔들림 없이 그렇게 덤덤하게 살고 싶다.

사 설

세종시의 이상한 분양열기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소가 100여 곳이 벌써 문들 닫았다고 한다. 건설경기가 한창으로 부동산경기가 활황을 보여야 할 세종시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줄 폐업사태를 빚는 이유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문을 열었던 부동산 중개업소가 이처럼 문을 닫는다는 것은 세종시의 개발 열기와는 크게 대조를 보인다. 세종의 건설 여파로 인근 도시들도 뭔가 세종효과를 보는 듯 했으나 그나마 시들하다. 도대체 이런 현상은 왜 빚어지는 것일까 궁금하다. 그러나 세종 부동산업계에서는 스스로 가 너무나 이런 현상을 쉽게 파악하고 있다. 아파트 특별분양 공무원들의 불법전매 때문에 빚어진 현상들이라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비리 때문에 시중의 정상적인 부동산 경기가 퇴행을 빚는다면 이는 참으로 잘못된 결과이며 그 피해자는 국민이자 세종시민이다.

그런데 한동안 폐업사태를 빚어 분양경기가 시들한가 싶었던 세종시에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다. 올 9월부터 분양이 되는 명품 아울렛 매장에는 부동산 중개사들을 포함하여 분양희망자들이 대거 몰려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매장분양에 따른 수수료 율도 크게 떨어져 기존 분양업체들은 울상이다. 분양을 하는 곳에 폐업했던 부동산중개사들이 자격증을 들고 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상가분양에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시공업체들은 분양을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아예 직접 분양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세종 분양시장에 몰아닥친 이상한 흐름도가 이른바 새로운 먹걸이 시장에 집중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로 조성되는 명품아울렛 매장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세종부동산업계는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분양이 시작도 하기 전인데도 그렇다.

여기에서 한번 짚어볼 일이 있다. 그동안 진행 중인 세종청사 공무원 특별분양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결과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세종청사 중앙공무원들의 그릇된 행태 때문에 세종시의 부동산업계가 뒤집히고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이 사건이 지지부진하다은 여론이다. 가타부타 하루속히 만천하에 공개되어야 한다.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세종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온 공직자들의 비리는 단호히 척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관여된 일은 더욱 그렇다. 그렇게 말이 많던 진경준 현직검사장도 비리혐의로 구속되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마당이다.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엄히 다스려야 할 사안이다. 그동안 3천 여 명으로 회자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불법전매 사건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세종시의 부동산시장에 검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개발동력을 떨어트리는 공직자들의 작태는 국민배신행위로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세종시의 내일은 명품 아울렛 매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업종에 다양한 흐름도가 물 흐르듯이 이어질 때 지역 동력도 되살아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분양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결과가 하루속히 발표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롭고 건전한 세종시의 분양동력을 되찾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바로 지금이 그 때이다.

다시 준동하는 종북세력을 경계해야 한다

2016년 7월 8일 금요일 오전 11시 정부는 2년 동안 고심했던 사드(THAAD)의 대한민국 배치에 대한 결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가 되는 순간부터 지금이 순간까지 대한민국 내에서의 갈등은 상상할 수 없는 지경까지 확산되며 이제는 배치에 대한 재검토(?)까지 거론되는 양상이다.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등의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위에 관한 중대한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으며,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지난 2월 14일 KBS 조사결과 67%가 찬성했고 23%가 반대를 할 정도로 국민적 공감을 이뤘던 사안이었다.

그런데 북한이 시간이 지남(2월 미사일 발사 후)에 따라 계속되는 방사포의 위협,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 6차례의 무수단 미사일, 그리고 6번째 무수단 미사일 이었던 화성 10호는 높이 1413㎞ 까지 올라갔으며 발사각도 32도로 쏘게 된다면 3500㎞ 떨어진 괌의 미군기지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중에도 대한민국에서 걱정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를 않고 오직 정쟁에 몰입하는 모습만 드러내고 있다. 방송은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는 남의 나라 일 다루듯이 취급하면서 국가안위는 저 멀리에 두고 오직 국회에서 싸움질하는 모습이 마치 최선의 뉴스인양 내보내고 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입에서는 "적극 대처 하겠다."며 큰소리 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더니 급기야 사드배치가 발표되고부터는 정부(국무총리)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확산되었다.

사드 배치의 지역 선정에 대한 불만, 사드 배치의 설치 타당성에 설명을 하기 위해 방문한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을 향해 계란과 물병을 투척하며 자신의 지역에 대한 사드 배치를 결사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을 볼 때 '뭔가 대단한 귀신에 홀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매스컴이 같이 한몫을 거들고 있는 전자파 위협, 사드배치 지역에 대한 북한의 공격 가능성 위협, 이를 빙자로 개인과 지역적인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불순세력, 그리고 북한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방향대로 추종하는 종북세력이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음은 실로 개탄할 일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인 판단이다.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법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을 한 것임을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이해해야 하며, 절대로 중국이나 북한의 입장에서 사드의 배치결정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안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지혜를 모아야한다.

그리고 지금의 갈등이 누구에게 이롭게 작용하는지를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제7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김정은의 3대 세습을 공고히 했고 핵 보유를 노동당규약에 명시하는 등 적화통일의 마각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 동안 계속되는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러면서 남북 간의 갈등 원인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처럼 선정하여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썩을 대로 썩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대통령에 대한 비난, 정부의 불신, 쓸모없는 예산의 낭비 등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칙과 반칙의 행동이 마치 올바른 행동인양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는 공산화를 앞둔 월남패망 직전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설마 설마 하다가 당한 월남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다.

북한은 월맹이 월남을 어떻게 공산화시켰는지를 철저히 학습했다. 누가 이런 대한민국을 선동하는지 국민들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 북한괴뢰집단이 노리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소사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 · 편집인	김현정	회 장	김성구	편집국장	한대수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산청안내	042)538-1603	구 독 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 처 : (주)중부인쇄산업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우리역사를 세계로 미래로!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大韓國人 安重根

대한독립군 장군인 안중근 의사의 날 제정을 추진합니다!

안중근의사의 날 제정 기념

경 **안중근의사 청소년 국악예술단 중국 하얼빈 방문공연!** 축

• 일시 : 2016.6.2~4일 • 장소 : 도리조선족중심소학교강당, 하얼빈체육관.

사형선고일 2.14 (발렌타인 신부 순국일)

안중근의 날

Ahn Jung-Geun Day

안중근의사 실제 사진

의거일 10.26 • 순국일 3.26 • 탄신일 9.2 • 사형선고일 2.14

안중근 초콜렛

크기 : 92mm(9.2cm)
안중근의사의 탄신일
1879년 9월 2일을 기념하는 의미임.
12조각의 글씨는 단지동맹을 뜻함.
초콜렛 두께 7mm는 안중근 탄생 시
가슴의 점 7개를 상징함.

안중근의 날 제정에 대하여

1910.2.14일은 안중근의사의 사형선고일이다.
또한 2.14일은 발렌타인데이 이기도하다. 발렌타인
신부는 로마시대 사람으로서 전장에 나가는
로마병사들에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례를 서주어
결혼금지법을 어긴 죄로 2월 14일 사형이
집행되었다.(순교일)
그런데 왜? 일제법관들은 하필이면 2.14일에
사형선고를 했을까? 다른 날짜에 선고하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이것은 결코 절대 우연이 아니며 일제의 간악한 계략이
숨어 있는 것이다. 즉, 6번이나 공판을 진행하면서
스스로 변호한 안중근 의사를 일개 살인범으로 몰고가야
일본의 영웅으로 불리는 이토히로부미의 정당성을
전세계에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던것이다.(자국에서 우편엽서에 안중근의사를
테러범으로 홍보키 위해 사진을 넣어 시판하자 오히려
너무 인기가 좋아져 판매를 즉각 중지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일제의 지시를 받은 일제 법관들은 천주교에서
전세계적으로 발렌타인 신부의 순교일 2.14일에
추모미사를 하는것에 대하여 직시하고 안중근 의사가
천주교 신자 (토마스, 중국은 도마로 발음)임을 패재라
여기고 이날 사형선고일을 정하면 전세계에 널리
홍보되어 이토히로부미가 마치 큰 피해자로 인식될
것이라 판단하여 2.14일 발렌타인 신부의 순교일에
맞추어 선고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일제는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날짜(26일)와
시간(10시)까지 꿰맞추어 일종의 비합리적인 종교의식과
같이 안중근 의사를 1910년3월26일 10시에 사형을
집행하였다. 아마도 이러한 사형방법은 세계
최초일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만행 등을 볼때 2.14일
날짜를 그대로 지나가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것이다.따라서 사형선고일 2.14일을 비롯 순국일
3.26일, 의거일 10.26일, 탄신일 9.2일, 단지동맹일 2.7
일을 안중근의 날로 제정하여 영원히 기억되도록 한다.

안중근의날제정추진위원회 위원장
안중근의사평화컵조직위원회 회장 최유진

안중근 초콜렛 디자인

12 조각은 단지동맹을 뜻합니다.

대한국인 위국헌신 군인본분

大韓國人 爲國獻身 軍人本分

안중근의날제정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안중근의사평화컵조직위원회 회장 최유진 ·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회장 동방 영만 · 중국하얼빈한국인(상)회 회장 이성룡 · 대전투데이 회장 김상구 · 안중근의사평화컵조직위원회 고문 · 안중근의사평화컵조직위원회 대전시지회장 · 안중근의사평화컵조직위원회 여성위원장 백연홍 · 안중근의사평화컵조직위원회 영예회장(충남지부회) 회장 성인제 · 안중근의사평화컵조직위원회 부회장 송영수 · 안중근의사평화컵조직위원회 수석부회장(남양주시지부회) 회장 조창희 · 안중근의사평화컵조직위원회 부회장(전남, 광주지부회) 회장 조영작 · 안중근의사청소년국악예술단 단장 박시영 · 안중근의사평화컵조직위원회 서울시중구지회 회장 아르즈(주) 대표이사 홍성춘 · 안중근의사평화컵조직위원회 홍보대사 김민지 · 세계지도자위원 한국미래연대 국가미래전략원 녹색미래연대 희망사회국민통합 추진위원 장영권 회장

안중근의사 평화컵조직위원회 大田투데이

안중근의사평화컵조직위원회 강감찬장군기념사업회 ·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시민연합 · 남북경협신문사 안중근의사청소년국악예술단 · 국제울타리축구연맹 한중체육문화협회 · 한국축구발전운동본부 녹색교통문화협회 · 국제휠체어축구연맹 중국하얼빈한국인(상)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5-10번지 라성빌딩 4F • TEL : 02-558-5020 (대) • C.P : 010-3260-9270 • E-mail : ujinsports@naver.com • www.kspo.kr 안중근의날 초콜렛 공식지정 생산회사 : 스푼홀릭